

기본과제 2019-07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여성일자리 확대방안

연구책임자 : 이지인 (대구여성가족재단 부연구위원)



보고서 인용 표시

이지인 (2019).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여성일자리 확대방안. 대구여성 가족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은 대구광역시 출연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으로, 지역여성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이 모이고 나누는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대구여성가족정책의 Think-tank입니다.

연구요약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적경제 유형 중 협동조합은 거버넌스 장점 및 공동이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경력단절여성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음. 2012년 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서비스 영역발굴과 여성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에 따라, 지역에서도 협동조합이 여성에게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산시키고 여성일자리로서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여성일자리로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여성에게 협동조합이 일자리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립 및 운영에서 어려움이나 요구도 등 파악함으로써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이에 본 연구는 협동조합이 여성일자리 창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여성일자리로 확대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함.
 - 구체적으로 대구 지역에서 여성일자리로서 협동조합이 확대되기 위해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서 지원과 여성취업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여성일자리로서 협동조합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좋은 일자리 개념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이 여성일자리로서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하였음

- 기존 연구, 각종 자료 수집과 조사를 통해 협동조합의 정의와 특성, 여성 일자리로서 협동조합을 논의하고 여성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함. 구체적으로 여성협동조합, 여성친화성, 협동조합 관련 기존 연구자료 및 행정자료, 국내외 관련 사례를 수집하고 검토하였음
- 대구시 협동조합 실태 자료를 발췌하여 협동조합 현황, 여성참여 정도, 협동조합지원 정책 등을 검토하였음
- 여성을 중심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참여, 사업내용, 여성친화성, 여성일자리 특성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서 문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사례조사를 실시함
 - 대구지역 협동조합 중 여성고용 혹은 여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 사례를 조사하고 그 중에 설립 및 사업운영 특성 등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사례를 분석함
 - 타 지역 우수 여성협동조합 사례 조사를 통하여 특징을 분석하고 대구 여성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참고하고자 하였음
- 여성협동조합 확대(설립, 운영 등)를 위해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일자리에 대한 인식, 참여 및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 협동조합 지원방안 도출에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하였음
 - 여성일자리로서 협동조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여성취업지원기관 직업훈련과정 참여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일자리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조사함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여성협동조합 설립 전·후, 협동조합 운영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여성취업지원기관, 협동조합지원기관 등의 간담회도 개최하였음
- 선행연구 검토
- 협동조합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로 협동조합 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가능성, 협동조합 조성 환경과 관련한 연구들이 대부분임

- 여성일자리와 관련한 협동조합 연구들도 대부분 사회적경제 조직이 여성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성을 찾고 여성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임
 -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여성협동조합의 활성화 차원에서 환경,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이 많았으며 사례조사를 통하여 여성친화성 있는 협동조합 형태, 적합한 협동조합 유형, 협동조합 생태환경 요소 등을 제안하였음(오은진 외, 2012; 김재민 외, 2013; 여성가족부, 2013; 정형욱, 2013; 김복태·문미경·김대진·황현숙, 2014; 김명화, 2015; 정현주 외, 2016)
 - 대구 협동조합과 관련한 연구는 대구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협동조합 지원체계 구축, 특성화 협동조합 육성 전략에 관한 연구가 있었음(석태문, 2013; 석태문, 2014)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대구 지역에서는 여성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여성일자리로서 접근하는 연구가 미흡함
-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이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 협동조합이 여성친화적인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여성협동조합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 여성취업지원기관과 연계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하였음

II. 협동조합과 여성일자리

□ 협동조합 정의와 특성

- 협동조합 기본법(2014)에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으로 정하고 있는 경제조직이며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공헌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차별적인 특성임

○ 협동조합은 사업을 위한 조직(자율결사체)으로 기본적인 가치를 자주, 자립, 자치 등에 두고 있으며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이윤을 위해 주식회사가, 사회적 기여 활동을 위해 사단법인이 존재한다면 협동조합은 그 두 가지 모두를 포괄해야 하는 조직임

○ 협동조합 유형은 크게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생산자협동조합 포함),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구분되어 짐

□ 협동조합과 여성 일자리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일자리는 우리나라의 일반적 일자리 혹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비해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음. 이는 협동조합은 자신의 직무에 많은 자율성 및 권한이 존재하고 민주적, 동료 간 협력적인 조직, 교육훈련 제공, 일자리관련 인간관계 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길현중 외, 2014)

○ 생애주기사건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여성에게 협동조합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가치(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 협동조합원으로서 윤리적가치(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적인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음
- 협력, 공정한 대우, 의사결정에 참여라는 협동조합 직무특성은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 조건으로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목적이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영리적 성격과 사단법인이 가지고 있는 비영리적 성격을 동시 가져야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참여하기에 어려움. 그러나 협동조합의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 동일한 필요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측면은 여성에게 선호될 수 있는 근로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여성협동조합은 구성원의 인적 구성 형태뿐만 아니라 운영되는 조직이 여성친화성이라는 측면이 함께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 협동조합 활동방식이나 운영 등에서 여성의 능력발휘,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지 등이 고려되어야 함
 -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생태계에서 성별 불평등, 여성의 참여 및 기회의 접근 제한, 성인지적 협동조합정책 등으로 인해 협동조합의 참여와 활동에서 제약이 없어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과 여성일자리

-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직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수혜자, 후원자 등의 이해관계자 중 두 그룹 이상이 조합원이 되어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시민사회 단체가 가지는 사회성과 협동조합 특징인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를 결합한 비영리 조직 형태임

- 사회적협동조합은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고되고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의 강점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직원들이 사회적협동조합에 참여할 경우에 주인의식이 높아짐으로서 동시에 높은 서비스 질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소비자 맞춤형으로 서비스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며 후원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부족한 자원을 보완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복지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을 대신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이 창출한 고용분야가 주로 고령자, 아동, 이민자 등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가사, 교육, 환경 등 여성친화적인 일자리가 많음
 - 또한 자율적 경영체제로 인해 고용안정성과 임금, 일·가정양립 등 고용의 질 차원에서 일반기업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이철선, 2013)

□ 대구시 협동조합 및 여성참여 현황

○ 대구지역 협동조합은 651개소(2019. 5. 30 기준)이며 일반협동조합 사업자 유형이 가장 많고 주로 도소매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일반협동조합은 94.6%, 사회적협동조합은 4.9%, 일반협동조합연합 0.5%임
- 유형별로 사업자 78.2%, 다중이해관계자 16.3%, 소비자 2.6%, 직원 2.6%임
-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22.9%, 교육서비스 12.5%, 협회 및 단체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10.5%, 농림어업 10.3% 제조업 9.8% 등 임

○ 대구지역 협동조합은 문화기회제공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함

- 「대구시 협동조합 실태 조사결과」 협동조합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 실업문제해결(20.7%), 문화기회제공(1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문화기회제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대구시의 독특한 현황임

○ 대구지역 협동조합에서 여성의 종사상 지위는 높지 않고 여성의 참여는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지역사회공헌 등 목적성이 큼

- 「대구시 협동조합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대구지역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은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원봉사자(무급)로서 다수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구지역 협동조합이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일자리창출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

- 「대구시 협동조합 실태 조사결과」에서 협동조합이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보다는 중고령층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Ⅲ. 여성협동조합 사례조사

□ 대구 여성협동조합 사례조사 결과

- 협동조합 설립 시에는 중간지원조직 등의 도움으로 어려움이 크지는 않고 오히려 설립이후 운영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 협동조합의 활동과정에서 성장, 유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함
- 설립일자를 기준으로 운영기간은 크게 3년 전후, 조합성격이 수익목적인가 아니면 조합원의 필요충족 목적인가로 구분되고 운영하는 사업성격에도 차이가 있음
 - 수익 목적을 가지고 있어 사업체 성격이 강한 협동조합은 주로 사회적기업, 기초자치단체지원 사업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음
 - 필요충족에 의한 결사체적 성격이 강한 협동조합들은 주로 마을기업을 운영하여 마을에서 소비하고 주민들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었음
-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전 일 경험은 생활협동조합 참여, 봉사활동, 경력단절 상태였음. 그리고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가고자하는 방향 및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협동조합이 단순히 관심분야가 갖거나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 수준으로 생각하고 설립하여 운영될 때 협동조합의 유지나 성장에서 한계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협동조합 운영기간과 조합의 성격은 향후 여성협동조합 설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됨. 협동조합 주체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협동조합의 운영형태를 다르게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여성협동조합이 설립된다면 두 가지 경우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수익적 목적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현실적으로 협동조합 운영을 통해서 원하는 만큼의 임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그리고 조합원의 필요충족에 의해서 설립된 경우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느슨하게 조직이 운영될 수 있음
 - 여성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어떤 욕구에서 출발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소득목적이나 필요충족 목적인 경우 오히려 여성에게 협동조합은 일자리 대안으로서 고려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됨
- 봉사활동이나 소모임을 통하여 같은 가치를 만들어가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동조합은 여성일자리로서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

으로 분석됨. 다만, 설립 후에 협동조합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경제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기업성에 대한 부분도 강화되어야 함

- 사례조사 협동조합 중 필요충족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의 경우 좋은 목적을 가진 결사체, 모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수익사업을 찾지 못해서 자립성이 부족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익사업 브랜드화를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 설립된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여성친화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여성친화성 요인 중 일가정양립이라는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지만 조합원들의 필요충족에 의해 설립되어진 협동조합에서 일가정양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사례조사 협동조합은 대부분 소규모로 이사장 혹은 대표를 맡고 있는 조합원이 사업 전반을 맡고 있어 현실적으로 일·가정양립 가능성이 낮음
- 그러나 결사체적인 성격이 강할 경우 조합원간 합의조정을 통해서 일가정양립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타 지역 협동조합 사례조사 결과

- 협동조합은 여성자조모임으로부터 설립이 되더라도 초기 설립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해야 향후 운영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협동조합 설립 시 참여자들은 사업분야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작은 모임을 통해서 협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졌음
- 협동조합의 가치는 곧 협동조합 운영의 방향성으로 이어져서 수익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수익목적보다는 사람에 대한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지역사회기여와 관련한 사업발굴에 노력하였음
- 성장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공헌, 지역사회기여라는 기본가치에 대해 흔들림 없이 꾸준히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었음

- 사례조사 협동조합들은 설립 시 결사체적인 성격에서 출발하지만 사업발굴, 고용안정성 등을 위해서 사업체적인 성격으로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가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분석됨
 - 협동조합의 사업체적인 성격에 대한 노력을 위해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 지원사업 외에 민간 공모사업, 정부기관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함
- 각 협동조합이 선택한 사업분야에서 기존업체와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차별성을 통해서 협동조합 생산물에 경쟁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여성에게 의사결정권 기회가 부여되는 협동조합 형태 일자리의 장점이 최대한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참여자 다수가 여성으로 일가정양립에 있어서 보육, 돌봄, 가사 등 가정일에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자들 간에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 합의과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음

IV. 대구지역 협동조합 형태 일자리 여성 요구도 조사

-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 협동조합에 대한 여성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파악하여 일자리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사업과 연계 및 협동조합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는 대구시 소재 여성취업지원기관(5개소)의 직업훈련과정 교육생 31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 분석대상 여성 318명은 기혼여성으로 이전 근로경험 및 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이 다수임. 주로 40-50대 여성으로 학력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많았음

□ 조사결과

-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협동조합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지만 협동조합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여성에게 일자리로서 협동조합은 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협동조합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좋아서 여성 일자리로서 장점을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협동조합이 여성일자리로서 고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으로 협동조합이 유지성장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현재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고용의 안정성 및 고용유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협동조합의 사업목적이나 취지가 좋기 때문에 관심도 높지만 여성일자리로서 고용 안정성이 없다면 이들이 선택할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음
- 근로시간 선택 가능한 일자리로 협동조합을 고려한다는 의견도 높았는데 이러한 요구는 여성친화성과도 관련되어지는 부분으로 향후 협동조합 일자리가 추구하고 나가야할 부분으로 분석됨
- 여성들은 협동조합 일자리 창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여성취업기관 등을 통한 협동조합 교육 확대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협동조합 교육은 협동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 희망하였고 교육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협동조합의 관심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가족돌봄, 육아 등의 이유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여성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필요충족보다 수익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협동조합 운영에서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취업과정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협동조합 교육에서 ‘제품생산이나 판매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협동조합의 결사체적인 성격보다는 사업체적인 성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협동조합 사업분야는 ‘교육 및 문화’ 를 중심으로 사업이 발굴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협동조합을 할 경우 어떤 분야에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 분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 모두 ‘평생교육 및 문화사업’ 에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협동조합 특징 중 ‘자율과 독립’ 에 대한 인식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징은 협동조합 자립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중요한 가치로 인식시키고 협동조합의 사업체적 성격에 대한 강조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여성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성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자본금 확보 방안과 협동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원의 출자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협동조합은 설립이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협동조합 자체의 자본금이 필요지만 출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 여성들은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수입 원으로서 위치에 있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V.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결과 종합

-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명확한 설립목적, 사업 차별성을 통한 시장 경쟁력 등 갖출 수 있도록 여성취업지원기관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지원 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협동조합 설립이전에 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은 설립이후 운영에서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립을 위한 일정 준비기간이 필요함
- 협동조합 사업은 기업이나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발굴되어야 함

- 대구 지역에는 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하여 돌봄 및 복지 서비스와 여성들의 관심도가 높은 교육문화, 교육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여성협동조합 사업을 찾아볼 수 있음
 - 여성취업지원기관의 일자리협력망이나 여성친화기업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한다면 기존 사업체와 차별성 있게 협동조합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협동조합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결사체 성격으로 설립된 경우 사업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장경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함
- 협동조합 주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협동조합의 운영 방향성을 잡는데 매우 중요함.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필요충족에 의해 설립되는 결사체 성격이 강할 경우에 여성의 협동조합 일자리 접근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 판단됨
 - 협동조합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설립이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성이 고려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조합원 대상으로 경제, 시장, 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으로 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협동조합이 운영되어야 함
- 협동조합 설립의 욕구에 따른 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민간공모사업, 정부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협동조합 사업 브랜드화 등을 위한 컨설팅이 지원되어야 함
- 여성협동조합 운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업 운영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것임. 그래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전문가들의 조언과 사업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함
 - 협동조합이 자체 사업발굴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과 독립성’이라는 협동조합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함
- 협동조합 설립은 물론 설립이후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조합원의 역량 개발, 조합원간 갈등해소 등 문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취업지원기관과 사회적경제지원기관 등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사회적경제지원기관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설립이후 운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은 미흡함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협동조합 발굴 지원을 위해서는 여성취업지원기관과 협력을 한다면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참여 확대의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지원정책 및 추진과제

- 지역 내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여성활동 모임과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사업운영
 - 지역 내 민간 및 공공기관의 풀뿌리조직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여성동아리, 여성소모임 등 발굴하고 준비기간을 통해 협동조합 형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 내 여성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고 협동조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창업기업 발굴
- 여성취업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여성협동조합 지원사업 운영 및 여성리더 양성
 - 돌봄서비스, 교육, 예술문화서비스 등 협동조합 형태 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창업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여성리더양성 및 여성역량 강화
 - 여성협동조합 및 준비단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여성협동조합 및 준비단 지원 프로그램(안)〉

□ 대상

- 여성취업지원기관 교육생 중 협동조합 설립운영자 또는 준비 중인 자
- 협동조합 창업 형태에 관심 있는 대구시 여성
- 조건 :
 - 협동조합(준비단)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일 것
 - 협동조합(준비단) 대표가 여성이어야 함
 - 사업분야가 돌봄서비스, 교육, 예술문화서비스 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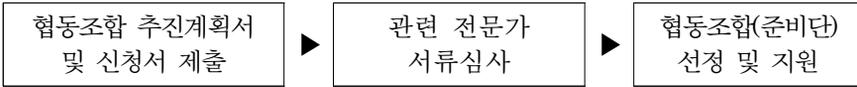
□ 내용

- 여성 특화 협동조합 및 준비단을 발굴하여 지원

- 여성협동조합 관련 안내 책자 제작 및 배포
-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조직 탐방 진행
- 여성협동조합 워크숍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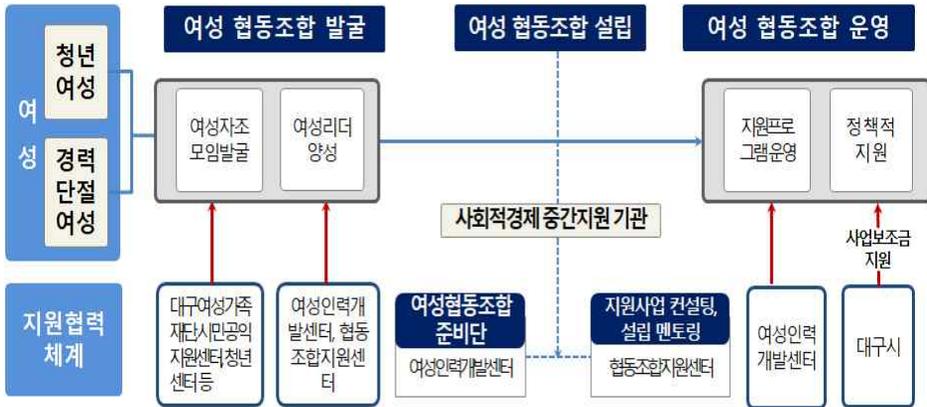
□ 사업 보조금 지원

- 여성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설립 전·후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 운영(지원금 최대 100만원 이내)



○ 여성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협동조합지원 협력체계 구축

- 여성협동조합이 여성친화적인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설립 전 여성협동조합 발굴, 여성협동조합 설립, 여성협동조합 운영 각 단계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협동조합 설립 준비부터 설립 후 관리까지 각 단계 여성취업지원기관, 사회적경제지원기관, 공공기관, 대구시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여성협동조합 육성



[여성협동조합 육성 지원 협력체계 구축(안)]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6
II. 협동조합과 여성일자리	9
1. 협동조합 정의와 특성	11
2. 협동조합과 여성일자리	14
3. 사회적협동조합과 여성일자리	18
4. 대구시 협동조합 및 여성참여 현황	21
5. 소결	29
III. 여성협동조합 사례조사	31
1. 대구 여성협동조합 사례조사	33
2. 타 지역 여성협동조합 사례조사	61
3. 소결	66
IV. 대구지역 협동조합 형태 일자리 여성 요구도 조사	69
1. 조사개요	71
2. 조사결과	73
3. 소결	86
V. 결론 및 정책제언	89
1. 연구결과 종합	91
2. 지원정책 및 추진과제	93

■ 참고문헌	99
■ 부 록	103

포 목 차

<표 II-1> 협동조합, 주식회사, 사단법인 비교	13
<표 II-2> 개인 수준의 고용의 질 지표	15
<표 II-3> 협동조합의 가치 혹은 원칙 관련 고용의 질 지표	16
<표 II-4> 대구시 협동조합 유형·구군별 현황	22
<표 II-5> 대구시 협동조합 업종·구군별 현황	23
<표 II-6> 여성취업지원기관 사업 참여 후 설립된 협동조합 현황 ..	25
<표 II-7> 협동조합 설립목적	26
<표 II-8> 협동조합 여성 참여 현황	28
<표 II-9> 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 현황	29
<표 III-1> 사례조사 협동조합 개요	33
<표 III-2> 사례조사 협동조합 특성 정리	59
<표 IV-1> 설문문항 구성	71
<표 IV-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72
<표 IV-3> 근로경험 유무별 협동조합 여성일자리 대안 가능성에 대한 인식	76
<표 IV-4> 근로경험 유무별 협동조합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 이유 ..	78
<표 IV-5> 근로경험 유무별 협동조합 통해 확대를 희망하는 일자리	79
<표 IV-6> 근로경험 유무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 사업분야 ..	80
<표 IV-7> 근로경험 유무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일자리 사업분야 ..	82
<표 IV-8> 협동조합 교육 유무 이유	83
<표 IV-9> 근로경험 유무별 협동조합 참여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84
<표 IV-10> 출자의향 유무 이유	86
<표 V-1> 여성협동조합 및 준비단 지원 프로그램(안)	95

그림 목 차

[그림 I -1] 연구수행절차	5
[그림 II -1] 대구시 협동조합 유형별 현황	21
[그림 II -2] 대구시 협동조합 구군별 현황	22
[그림 II -3] 대구시 협동조합 산업별 현황	23
[그림 VI -1] 협동조합 인지도	73
[그림 VI -2] 협동조합 특징에 대한 인식	74
[그림 VI -3] 협동조합 일자리 장점	75
[그림 VI -4] 협동조합 여성일자리 대안 가능성에 대한 인식	76
[그림 VI -5] 협동조합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 이유	77
[그림 VI -6] 협동조합 통해 확대를 희망하는 일자리	78
[그림 VI -7]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사업 분야	80
[그림 VI -8]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일자리 사업분야	81
[그림 VI -9]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교육 희망여부	82
[그림 VI -10] 협동조합 참여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84
[그림 VI -11] 협동조합 참여시 출자의향	85
[그림 V -1] 여성협동조합 육성 지원 협력체계 구축(안)	97

I. 서론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6

1. 연구의 목적

사회적경제 영역은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조직운영의 민주성과 유연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성친화적 일자리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 개인적 차원 보면 여성은 사회참여를 통해 능력개발 및 경력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일자리창출을 통해 여성주체성과 지위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경제 영역은 여성의 참여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고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 중 협동조합은 거버넌스 장점 및 공동이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재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협동조합은 고용생애 주기의 관점에서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지원, 능력개발의 양성평등 제공 등으로 여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다(김복태 외, 2014). 그래서 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서비스 영역발굴과 여성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일반협동조합, 근로자 협동조합, 돌봄협동조합 등 다양한 방식의 협동조합으로 일자리 전환을 모색하여 왔다(오은진 외, 2012). 그리고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복지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을 대신하는 위상을 가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여성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일자리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여성의 협동조합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여성일자리로서 인식도 부족하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협동조합이 여성에게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산시키고 여성일자리로서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협동조합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 설립된 여성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협동조합에 여성의 참여가 늘어나는 등

4 |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여성일자리 확대방안

여성일자리로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여성에게 협동조합이 일자리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립 및 운영에서 어려움이나 요구도 등 파악함으로써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협동조합이 여성일자리 창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구 지역에서 여성일자리로서 협동조합이 확대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이 찾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활성화, 여성친화적 일자리가 되기 위한 지원과 여성취업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협동조합 관련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단계별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이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 논의를 통해 여성협동조합을 정의하고 협동조합이 여성일자로 적합한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구지역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에 여성 참여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협동조합 및 여성협동조합 관련 기존 연구자료, 행정자료, 국내외 협동조합 사례집 등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구시,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재해석하였다.

둘째, 여성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특성, 여성친화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협동조합 확대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대구지역 및 타 지역 여성협동조합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는 여성대표자이면서 조합원 다수가 여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선정하여 협동조합 설립, 운영, 여성고용 및 여성친화성 등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타 지역 여성협동조합 사례는 우수한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대구 여성협동조합 정책지원 방향도출에 참

고하고자 하였다.

셋째, 협동조합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여 협동조합 일자리에 대한 여성 참여 가능성을 파악해보고자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여성취업지원기관의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한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내용은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협동조합 일자리에 대한 생각 및 참여 가능성 등이었다.

넷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여성협동조합 설립 전·후, 협동조합 운영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여성취업지원기관, 협동조합지원기관 등의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3. 선행연구 검토

가. 협동조합 여성고용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 여성고용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전후로 여성협동조합의 활성화 차원에서 협동조합 조성 환경, 여성일자리 대안으로서 창출을 위한 정책지원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여성친화적인 협동조합 설립 유형 및 방향,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오은진 외(2012)는 여성일자리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설립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협동조합의 정의 및 역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여성일자리 쟁점사항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단기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컨설팅 강화, 사회적협동조합 허가의 유연성과 공공서비스 시장 확대, 경력단절여성이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 유형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정형욱(2013)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의 고용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를 통해서 여성일자리창출지원 과제 그리고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안을 도출하였다.

김재민 외(2013)는 협동조합이 여성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대안적 노동형태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협동조합’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여성협동조합 생태계적 조성 측면에서 여성협동조합 활동가의 활동실태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성가족부(2013)의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연구는 여성친화적인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여 여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5가지유형(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형, 전문적 돌봄서비스형, 여성친화적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역사회참여 공동창업

형, 여성과 청소년 자립형)으로 구분하여 이 제안 모형과 여성가족부 주요 정책방향을 연계하여 일자리 정책을 제안하였다.

김복태·문미경·김대진·황현숙(2014)는 협동조합이 여성친화적인지,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성이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협동조합분야로 인력공급 민·관·학 협력모델, 시간제 일자리 창출형 여성중심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공유형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지원, 가족친화인증 평가항목 및 추진체계 개발을 통한 가족친화 협동조합 개발 및 확산, 여성발전센터 등을 활용한 여성친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등을 제안하였다.

김명화(2015)는 지역에서 운되고 있는 여성중심 협동조합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설립과정 및 운영내용과 여성 일자리 창출 및 활동에서의 시사점, 정책 요구 사항 등을 조사연구하여 여성중심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현주 외(2016)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안정적 정착화를 통한 여성일자리 확대와 지역 적합형 사회적경제 분야로의 여성경제참여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 대구지역 협동조합과 관련한 연구

대구 지역의 협동조합과 관련한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과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석태문의 2013년 연구에서는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모든 조직체와의 연계·협력, 연대활동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4년 연구에서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협동조합 지원체계 구축, 특성화 협동조합 육성 전략을 통해서 대구 협동조합의 육성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협동조합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전·후로 협동조합 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가능성 그리고 협동조합 조성 환경과 관련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여성고용과 관련한 협동조합 연구들도 사회적경제조직 중 하나인 협동조합이 여성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성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여성협동조합의 활성화 차원에서 협동조합 조성 환경,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많았으며 여성친화성이 높은 협동조합 사례, 여성에게 적합한 협동조합 유형, 협동조합 생태환경 요소 등을 제안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구체적인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지역의 경우 최근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통하여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참여자의 다수이며 비경제활동 인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이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여성일자리로서 접근하는 연구가 미흡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을 여성일자리로서 접근하여 협동조합이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 여성친화적인 일자리인지를 살펴보고 지역 여성취업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실천적인 여성협동조합 지원 정책과제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II. 협동조합과 여성일자리

1. 협동조합 정의와 특성	11
2. 협동조합과 여성일자리	14
3. 사회적협동조합과 여성일자리	18
4. 대구시 협동조합 및 여성참여 현황	21
5. 소결	29

1. 협동조합 정의와 특성

가. 협동조합 개념과 생태계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1989년 유럽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유럽 연합은 사회적 경제 개념을 통해 유럽의 장기실업문제, 지역 간 격차 심화, 정부의 복지기능 축소, 고령사회, 여성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적경제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제도화 하였다. 사회적경제는 19세기 초반 프랑스에서 등장하였으며 이윤추구 보다 구성원들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하고 자율적인 경영, 민주적인 의사결정, 수익분배에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우위에 두는 원칙에 의한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 원칙에 의해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민간단체, 상호공제조직 등 사회적경제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2014)에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으로 정하고 있는 경제조직으로 정의 된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와 달리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명기되어 있어 조합원의 권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공헌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차별적인 특성이다.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은 생물체의 태동, 성장, 재생산의 과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협동조합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사전의미로 생태계란 용어가 생물이 살아가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안에서 생물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뿐 아니라 주위 환경과도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에 근거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의 생태계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으나 자치단체의 기본조례에서는 협동조합 생태계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도 2013년 제정된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8. 10시행)」에 제2조에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동조

합의 설립, 운영, 시장의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잉여금의 지역 내 재투자 등이 선순환 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석태문(2013)연구에서 협동조합 생태계는 개별 협동조합의 활동방식, 협동조합 간의 협동 활동 지원, 각종 단위의 연합회 구성 등을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의 필요요건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협동조합 생태계는 협동조합이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나. 협동조합의 가치와 유형

협동조합은 사업하기 위한 조직이다. 자율결사체로 기본적인 가치를 자주, 자립, 자치 등에 두고 있으며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에서 ①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②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③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자율과 독립, ⑤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⑥협동조합 간의 협동, ⑦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협동조합의 7대 원칙으로 천명하였다. 협동조합은 자율적인 공동체적 결사체로서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구와 열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기본적 목표이며 그 운영과정에서 개방된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 간의 연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성과와 관련성을 갖는다(Marcone 2006; 김복태 외 2014:75 재인용). 그리고 협동조합은 사업체(enrprise)적 조직이면서 동시에 결사체(association)적 조직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 목적과 동시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업과는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

Coop 협동조합 교육 자료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조합원에 의해 차별 없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협동조합은 물론 사회 전체도 공정하고 연대하는 사회가 되도록 한다” 를 기본가치로 하고 있다. 또한 참여하는 조합원은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윤리적 가치를 신조 삼아야한다. 협동조합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이윤을

위해 운영되는 주식회사와 다른 점은 조합원의 열망과 필요에 의해 설립하여 조합원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는 점이다. 또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영리법인의 협동조합과는 그 차이점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이윤을 위해 주식회사가, 사회적 기여 활동을 위해 사단법인이 존재한다면 협동조합은 그 두 가지 모두를 포괄해야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1> 협동조합, 주식회사, 사단법인 비교

구분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이윤을 위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원의 권익실현 (호혜적동기)지역사회에 공헌 조합원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 운영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법인으로서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목적사업 및 사회에 대한 기여를 위해 설립
의사결정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수에 비례하여 의사결정 권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금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권리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하며 사원 이사회가 실제 사단법인을 운영 및 사업 등 전개
수익분배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양에 따라 주식회사의 수익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원의 유형에 따른 수익분배 이용배당을 우선, 이후 출자배당 	-
소유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의 규모에 따라 주식회사의 소유권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 조합원 모두 공동 소유 	-

자료: COOP 협동조합 교육 강의자료 참고하여 정리. <http://www.coop.go.kr/COOP/edu/main.do>

그리고 협동조합의 유형은 주된 조합원이 누구이고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사업을 벌이는가에 따라 유형은 구분 된다. 협동조합 유형은 크게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생산자협동조합 포함),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며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

는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다. 사업자협동조합은 사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공동 판매, 자재의 공동구매, 그 밖의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이다. 그리고 직원협동조합은 직원들의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이며 소비자(또는 구매사업자), 직원, 급자(또는 생산자), 후원자 중 두 그룹 이상의 그룹이 함께 조합원이 될 경우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된다. 또한 협동조합들이 조합원의 필요만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 더 우선순위를 둘 때 사회적협동조합 유형에 속하게 된다.

2. 협동조합과 여성일자리

가. 여성일자리로서 협동조합

좋은 일자리는 누가 그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관계없이 좋다는 것이다(크리스 틸리·찰스 틸, 2009:251). 통상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일의 양보다 일의 질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일자리의 질은 임금, 건강보험, 퇴직금 등과 같은 금전적 보상과 노동시간, 복리, 근무의 자율성 등 비금전적 보상을 포함한다(Kalleberg,2011). 그리고 좋은 일자리와 유사한 개념에서 ILO는 괜찮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지표로 고용기회, 부적절한 일 여부, 적정 소득과 생산적 노동, 적절한 노동시간, 노동 안정성과 지속성, 일-가정양립, 고용 공정성, 안전한 노동, 사회적보장, 사회적 대화와 노사관계, 사회경제적 맥락을 제시하였다(Anker et al.,2002). 그리고 방하남 외(2007)는 직업/직무특성, 고용안정성, 발전가능성, 보상, 근무조건, 관계 지표를 통해서 개인 수준의 고용의 질을 단면적으로 분석하였다. 일자리 질에 관한 선행연구들 통해서 좋은 일자리는 개인의 적합도(보수, 근로시간, 근로환경 등)에 맞는 일을 찾아 역량개발과 함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자리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2〉 개인 수준의 고용의 질 지표

개인수준	고용의 질 지표
직업/직무 특성	자율성(일상근무의 독립성), 권한(할일을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권리), 위세(사회구성원들의 직업에 대한 평가)
고용안정	정규고용(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고용형태), 고용안정성(주관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느끼는 정도)
발전가능성	숙련향상가능성(업무능력향상), 승진가능성(개인발전 가능성)
보상	급여(금전적 혜택), 부가급여(간접적 금전혜택)
근무조건	근무시간(일하는 시간) 작업환경(일하는 곳의 작업환경)
관계	참여/발언(개인의사 피력) 인간관계(동료 및 상사, 고객과의 인간관계)

자료 방하남 외(2007:174)

그렇다면, 협동조합이 좋은 일자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함께 협동조합 설립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좋은 일자리인가에 대해서 길현종 외(2014)연구는 협동조합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일자리는 우리나라의 일반적 일자리 혹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비해 좋은 일자리며 이는 구조적 특징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좋은 일자리라는 기준이 임금근로자의 주관적 평가 기준이지만 협동조합은 자신의 직무에 많은 자율성 및 권한이 존재, 민주적이고 동료 간 협력적인 조직, 교육훈련을 제공, 일자리관련 인간관계 등을 중요시 하는 개인의 특성에 근거한다는데 눈여겨 볼만하다. 다시 말하자면, 협동조합은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비금전적 보상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일자리로 여기에 높은 가치를 둘 경우 좋은 일자리로 인식될 수 있다.

〈표 II-3〉 협동조합의 가치 혹은 원칙 관련 고용의 질 지표

가치 혹은 원칙	고용의 질 지표
민주적운영	의사결정에 적극적 참여와 의견반영 정도
공정성	공정한 대우를 받는 정도
협력의 문화	동료들 간의 협력의 정도

자료: 길현중 외(2014:119)

그러면 개인적 특성에 근거하게 되는 협동조합이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한다. 좋은 일자리 혹은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은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생애주기에 따라 겪게 되는 결혼·출산·육아라는 측면이 더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생애주기사건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경제활동을 원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육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의 특성을 여성친화성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여 협동조합이 여성에게 어떤 일자리가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Cattaneo & Templer(1994)는 여성친화성 개념을 개인적 수준과 조직의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개인적 수준에서 여성친화성은 여성에게 개인, 직장인, 배우자,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의 정책 프레임워크의 특성과 정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직의 수준에서는 여성이 조직 내에서 과업을 달성하고 경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의 수월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결국 여성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즉, 여성에게는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협동조합 일자리가 높은 임금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제근로를 선호하거나 직무, 인간관계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개인에게는 매우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길현중 외, 2014). 오은진 외(2012)연구에서 협동조합은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경제활동 인구 중 다수인 여성을 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하며 여성취업

의 증가는 향후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재화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일자리를 개발하고 다시 고용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생애주기사건으로 인해 경력단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활동 시 일·가정양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성에게 협동조합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좋은 일자리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나. 여성협동조합의 정의

여성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의 운영자가 여성, 사업자대표가 여성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적구성을 중심으로 여성협동조합을 개념화하게 될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편협해질 수 있고 여성이라는 정책수혜자의 양적 측면만을 고려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성협동조합은 인적구성 뿐만 아니라 여성친화성이라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협동조합은 여성친화적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가족부(2008)는 여성친화적기업을 개인적 수준에 근거하여 경영자가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구축하며 여성인재 육성에 힘쓰는 사업이라고 하였다. 즉, 여성친화기업은 근로자 개인의 성과를 실현함과 동시에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업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여성협동조합은 여성의 능력발휘를 통해서 성과(혹은 결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협동조합은 구성원의 인적 구성 형태뿐만 아니라 여성친화성이라는 측면이 함께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성협동조합에 대해서 김재민 외(2013:32)는 여성협동조합은 여성 조합원이 과반수인 협동조합을 의미하며 ① 여성들이 소비자나 생산자의 주 구성원이 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를 충족함 ② 여성주의적 가치를 표방하지 않아

도 일상적으로 여성주의적 가치를 지향하고자 함 ③ 여성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대안적 노동형태를 제공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협동조합 생태계와 달리 여성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한다. 김재민 외(2013)는 여성협동조합 생태계란 여성협동조합의 태동, 성장, 유지, 해체, 재생산을 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협동조합 개체, 협동조합 개체군, 관련 환경 및 인프라가 조성된 총체적 여성협동조합 생태사회시스템이라고 개념화 하였다. 즉, 여성협동조합 생태계는 여성협동조합 및 여성협동조합군, 지역공동체 등과의 상호관계성, 협동조합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균형성과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 내부의 자율적 조절 및 순환, 사회변화에 대한 협동조합의 적응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협동조합이 구성원의 인적 구성 형태뿐만 아니라 여성친화성이라는 측면이 함께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여성협동조합 생태계는 성별 불평등 및 여성의 참여 및 접근 제약 해소 등으로 인해 여성의 협동조합 참여 및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스템인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김재민 외(2013)는 성평등한 조합원 참여, 유기적인 지역 여성 협동네트워크, 기초·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여성협동조합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여성협동조합 생태계의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3. 사회적협동조합과 여성일자리

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직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수혜자, 후원자 등의 이해관계자 중 두 그룹 이상이 조합원이 되어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1991년 이

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법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우리나라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2011. 12) 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도입하게 되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공익사업을 40%이상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별도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구조를 가져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 공익사업은 ①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사업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기타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탈퇴(제명)되면 출자금을 포함하여 지분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 환급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기업이나 국가기관과 달리 공적 지원시스템이 제도화되지 않은 영역으로 복지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공감감이 부족하여 제도적 지원이 미약한 분야(예: 문화 분야, 예방의학 분야 등)에서는 영리기업이 취약 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조직하여 기업과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분야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원칙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와 열망, 그 중에서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에 해당하는 필요와 열망(고용, 교육, 보건 등)은 협동조합이 갖는 핵심적 사명이다. 둘째, 교육과 훈련은 공동 소유권 및 민주적 지배와 연관성을 갖는다. 협동조합은 학습조직의 일종이며 학습과정은 지역사회의 임파워먼트를 직접적인 목표로 추구한다. 셋째,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지배하는 조합원들은 동시에 협동조합을 통해 기본적인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원하는 이해당사자들이기도 하다. 넷째, 지역에 기반을 둔 역동적인 상향

식 조직에서 출발한 협동조합은 조직, 지역, 협동조합 노동자, 수혜자인 지역주민 사이에 강한 유대관계가 형성되며 이에 따른 결과물로 신뢰를 창출한다.

나. 사회적협동조합 강점과 여성일자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시민사회 단체가 가지는 사회성과 협동조합이 특징인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를 결합한 비영리 조직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법 개정(2013.12.26.)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경영과 교육훈련, 시설비, 인건비 등 직·간접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강점은 첫째, 서비스를 공급하는 직원들이 사회적협동조합에 참여할 경우에 주인의식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그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서비스를 공급받는 소비자나 수혜자가 조합원으로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서비스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구성하게 되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후원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부족한 자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점으로 인해 사회적협동조합은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고되고 있다. 이는 해외 사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여성고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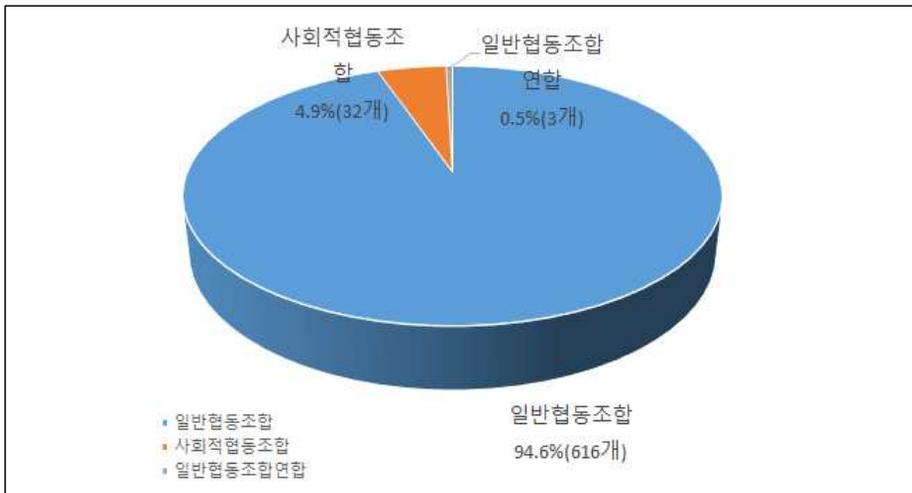
이철선(2013)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첫째,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경제주체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복지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을 대신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사회적협동조합이 창출한 고용분야가 주로 고령자, 아동, 이민자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가사, 교육, 환경 등 여성친화적인 일자리가 많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율적 경영체제로 인해 고용안정성과 임금, 일·가정양립 등 고용의

질 차원에서 일반기업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강점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여성고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여성일자리 대안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을 확대하고 일반협동조합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대구시 협동조합 및 여성참여 현황

가. 대구시 협동조합 현황

대구지역 협동조합은 651개소(2019. 5. 30 기준)이며 일반협동조합 형태가 대부분이며 구군별로 동구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일반협동조합은 94.6%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4.9%, 일반협동조합연합 0.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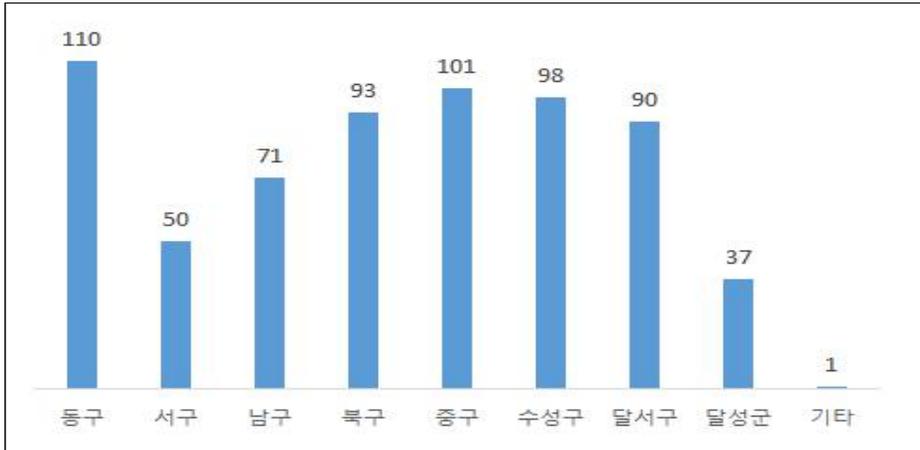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홍보포털>협동조합현황 <http://www.coop.go.kr/COOP>,
검색일: 2019. 5. 30

[그림 II-1] 대구시 협동조합 유형별 현황

22 |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여성일자리 확대방안

협동조합은 구군별로 보면 동구 110개소, 중구 101개소, 수성구 98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8개 구군 중 달성군은 37개소로 가장 적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홍보포털<협동조합현황 <http://www.coop.go.kr/COOP>, 검색일: 2019. 5. 30

[그림 II-2] 대구시 협동조합 구군별 현황

협동조합 유형별로 사업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중이해관계자, 소비자, 직원 순으로 많았다. 기타는 일반협동조합연합회로 대구지역에는 2개소가 달서구와 북구에 있었다.

<표 II-4> 대구시 협동조합 유형·구군별 현황

(단위: 개)

유형	계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일반협동조합	사업자	508	47	76	30	80	75	36	80	84
	소비자	17	6	-	-	6	2	-	2	1
	다중이해관계자	74	13	6	5	9	11	9	10	11
	직원	17	3	2	1	4	1	1	3	2
	기타	2	-	1	-	-	1	-	-	-
사회적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32	2	5	1	11	3	4	3	3
총계	618	69	85	36	99	90	46	95	98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홍보포털<협동조합현황 <http://www.coop.go.kr/COOP>, 검색일: 2019. 5. 30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었으며 주로 사업내용은 음식, 의류,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중심으로 공동구매, 판매, 가공 등이 많았다.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홍보포털 <협동조합현황> <http://www.coop.go.kr/COOP>, 검색일: 2019. 5. 30

[그림 II-3] 대구시 협동조합 산업별 현황

업종분포를 구군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부분 구·군도 도매 및 소매업이 다수였으나 남구와 중구는 다수 업종이 다르게 나타났다.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북구는 ‘도매 및 소매업’, 남구 ‘교육서비스업’, 중구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이 다수였다.

<표 II-5> 대구시 협동조합 업종·구군별 현황

(단위: 개)

업종별	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건설업	8	-	3	1	-	-	1	2	-
교육 서비스업	81	7	3	14	16	9	11	17	4

24 |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여성일자리 확대방안

업종별	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수영구	달서구	달성군
농업, 어업 및 임업	67	11	5	8	4	12	13	12	2
도매 및 소매업	149	29	12	10	32	17	19	21	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3	7	3	2	6	7	5	2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1	-	2	-	-	1	1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	2	2	5	2	1	2	-	-
숙박 및 음식점업	29	6	5	4	3	5	5	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1	4	1	3	10	21	12	6	3
운수업	27	7	4	1	1	2	4	3	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	3	2	2	3	3	1	3	1
제조업	64	9	7	4	8	11	10	11	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3	5	-	4	2	2	3	6	1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	1	-	1	-	-	-	1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8	18	3	10	6	11	11	4	5
총계	650	110	50	71	93	101	98	90	37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홍보포털<협동조합현황 데이터 재구성

협동조합들 중 여성취업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 이후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6개 정도였다. 대구지역 5개 여성
취업지원기관 중 2개소에서 직업훈련과정 후 취업의 일환으로 협동조
합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지원하였다. 우선,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직
업훈련과정 교육 후 여성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였다. 직접운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사후관리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설립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하는 정도 수준의 역할
을 하였다. 그리고 수성여성클럽은 직접적으로 1개 협동조합을 운영하

고 있으며, 2개 협동조합은 직업훈련과정 교육 후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었다. 수성여성클럽의 경우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설립, 운영 등 과정에 법인의 다양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다.

<표 II-6> 여성취업지원기관 사업 참여 후 설립된 협동조합 현황

구분	협동조합명	인가일	업종	유형	주요사업	비고
일반협동조합	디지아트쉐어협동조합	2016.10.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기획 및 참여 예술공연사업 통합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예술 서적 출판 및 음반제작사업 	대구인력개발센터
일반협동조합	모아모아예술협동조합	2017.10.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기획 및 참여예술 공연사업 통합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예술 서적 출판 및 음반 제작 사업 	대구인력개발센터
일반협동조합	항공과학교육협동조합 날자	2018.10.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론 교육, 촬영 및 편집, 정비 및 수리, 교육재능기부 	대구인력개발센터
일반협동조합	카페더로즈협동조합	2017.03.10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페사업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사업 커피 전문가 육성 및 교육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관련 부대사업 	수성여성클럽
일반협동조합	수성가죽공예협동조합	2015.10.19	제조업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 부재료의 구매사업 조합원 개발제품의 생산 제품 및 반제품의 판매 사업 	수성여성클럽
일반협동조합	우리동네여·행로즈협동조합	2014.09.2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수납관리 및 가사서비스사업 돌봄서비스, 심부름서비스 사업 	수성여성클럽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홍보포털>협동조합현황 데이터 재구성

나. 협동조합 설립 목적

「2017 대구시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주로 신생 설립한 경우가 다수이며 주요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설립한 목적은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이 가장 높게 나왔다. 조합의 사회적 설립목적 대비 조합의 주된 설립목적에서도 대부분 협동조합의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는 실업문제해결(20.7%)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문화기회제공(17.7%) 높게 나타났는데 문화기회제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대구시의 독특한 현황이라고 설명 하였다.

<표 II-7> 협동조합 설립목적

주업종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	
업종 구분	사례수	내용	사례수
전체	164	지역주택문제	5
교육서비스업	43	좋은 먹거리 생산	10
도매 및 소매업	30		
제조업	28	좋은 먹거리 유통	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2	골목상권 회생	16
운수업	11	실업문제 해결	34
숙박 및 음식점업	10	지역환경보호	3
농업, 임업 및 어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	노인돌봄확대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	아동돌봄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4	방과후교육	3
건설업	3	문화기회제공	2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의료 및 건강	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사어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	폭력 등 학교문제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	11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		
		기타	27

자료: 대구광역시·커뮤니티와 경제(2018:29-30) 자료 참고하여 재구성

다. 협동조합 여성참여 현황

「2017 대구지역 협동조합 실태조사」¹⁾에 따르면 대구지역 협동조합의 종사자 수는 총 2,401명으로 조합 당 평균 14.6명이라고 하였다. 방문조사 164개를 대상으로 여성의 협동조합 참여 현황정도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임원이나 임금근로자 형태보다는 자원봉사자(무급)로서 다수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지역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지위나 근로조건이 여성 참여를 높일 수 있을 정도로 좋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였다. 기업의 여성친화성이 낮은 조직문화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측면에서 본다면 통계조사 내용상 협동조합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의 낮은 지위, 여성 참여율 저조, 무급노동 등 여성노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사회경제조직인 협동조합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이해된다.

먼저 조사 전체사례 대비 인원으로 전체 임원비율을 살펴보면, 여성 2.1명, 남성 3.8명으로 남성이 조금 더 많고 무급으로 참여하는 비상근 이사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다. 상근이사(유급)는 여성 0.1명, 남성 0.2명, 비상근이사(유급) 여성 0.1명, 남성 0.1명, 비상근이사(무급) 여성 1.3명, 남성 2.2명, 감사 여성 0.3명, 남성 0.7명이었다.

조사 전체사례 인원 대비 임금근로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남성근로자 정규직이 많았다. 임금근로자 중 여성 1.5명, 남성은 4.2명, 정규직 여성은 0.7명 남성은 4.0명 비정규직 여성 0.8명, 남성은 0.2명이었다. 그리고 조사 전체사례 대비 인원 자원봉사자는 여성이 2.2명, 남성 0.9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유급형 여성 0.4, 남성 0.2, 무급형 여성 1.8명, 남성이 0.7명으로 여성들은 대부분 협동조합에서

1) 대구지역 협동조합 설립과정, 운영현황, 재무현황 등 조사를 통하여 DB구축을 위하여 시행하였으며 전화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함. 전화조사는 2017년 대구지역 소재 협동조합(수리, 인가 협동조합) 중 연합회(2개)를 제외하고 전수 전화 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운영 상태를 파악. 그리고 방문조사는 전화조사를 바탕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매출이 발생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방문조사(164개소)를 결과 내용을 인용하였음.

무급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었다.

<표 II-8> 협동조합 여성 참여 현황

(단위: 명)

구분	사례	인원	평균 근무자 수			
			전체	여성	남성	
임원	총계	164	972	5.9	2.1	3.8
	이사장	164	164	1.0	0.3	0.7
	상근이사(유급)	28	47	0.3	0.1	0.2
	비상근이사(유급)	11	26	0.2	0.1	0.1
	비상근이사(무급)	150	570	3.5	1.3	2.2
	감사	142	165	1.0	0.3	0.7
임금근로자	총계	83	922	5.6	1.5	4.2
	정규직	63	765	4.7	0.7	4.0
	비정규직	33	157	1.0	0.8	0.2
자원봉사자	총계	40	501	3.1	2.2	0.9
	유급형	10	90	0.5	0.4	0.2
	무급형	31	411	2.5	1.8	0.7

자료: 대구광역시·커뮤니티와 경제(2018:29-30) 자료 참고하여 재구성

그리고 조사된 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 그룹 중에서는 55세 이상 중고령자가 가장 많았다. 조사기관 52개소 중 경력단절여성 고용은 18개소 50명 정도였으며 55세 이상 중고령자는 28개소 379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구시 협동조합 전수 조사 결과는 아니지만 조사대상 결과로만 볼 때 협동조합은 전반적으로 중고령층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II-9> 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 현황

(단위: 명)

취약계층		사례	인원
취약계층고용	총계	52	603
	장애인	16	57
	고용취약청년	9	11
	경력단절여성	18	50
	결혼이민자	1	2
	55세이상 중고령자	28	37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1	90
	북한이탈주민, 갱생보호자 등	5	14

자료: 대구광역시·커뮤니티와 경제(2018:29-30) 자료 참고하여 재구성

5. 소결

생애주기사건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여성에게 협동조합은 사회참여 혹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목적이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영리적 성격과 사단법인이 가지고 있는 비영리적 성격을 동시에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참여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 동일한 필요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측면은 여성이 협동조합을 일자리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경제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적은 여성들은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하지 못하여 재취업되더라도 적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이 좋은 일자리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친화적 일자리가 많고 고용창출이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보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접근성이 더 높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여성의 참여를 통해서 운영되어지는 여성협동조합은 구성원의 인적 구성 형태뿐만 아니라 여성친화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래서 여성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 시 여성주의적 가치가 잘 실현되고 생애주기에 따라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대안적 노동형태를 제공하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한다. 그리고 대구 지역 협동조합 설립은 대부분 사업성과 향상을 통하여 경영개선이나 안정이라는 목적성이 크지만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종사상 지위가 높지 않고 대부분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공헌 목적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비공식부분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협동조합이라는 공식적인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협동조합 설립은 우선적으로 지역사회공헌이라는 가치에 두더라도 운영에서 사업성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Ⅲ. 여성협동조합 사례조사

1. 대구 여성협동조합 사례조사	33
2. 타 지역 여성협동조합 사례조사	61
3. 소결	66

1. 대구 여성협동조합 사례조사

가. 사례조사 개요

대구 지역 여성협동조합 사례조사는 기존의 협동조합 현황자료를 통해 파악하기 힘든 여성들의 협동조합 설립배경, 활동과 역할, 협동조합 활동 후의 변화, 협동조합 운영 및 참여의 어려움 등에 경험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지원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사례조사를 위한 협동조합 선정은 1차적으로 협동조합 포털사이트(coop)의 대구 지역 협동조합현황,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조사대상을 30개로 압축하였으며 2차적으로 1차 선정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지역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추천 등을 통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협동조합 유형별로는 소비자협동조합 1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3개, 직원협동조합 2개, 사업자협동조합 3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례는 여성이 협동조합을 설립한 다양한 동기를 고려하였으며 여성 대표자, 조합원 및 근로자 대부분이 여성, 여성이 선호하는 산업(사업)분야, 사업 취지가 여성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다.

사례조사는 협동조합 방문 면접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대표자 혹은 조합원과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조사내용은 협동조합 참여 계기 및 목적, 구성과 역할, 주요활동 및 운영방법, 활동 후의 변화, 예로 사항 및 향후 계획, 여성고용 및 일자리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표 III-1> 사례조사 협동조합 개요

협동조합명	업종	수리 (연)개일	유형	주요내용 (주익사업)
강북희망협동조합	숙박 및 음식점업	2015	소비자	요식업, 공동구매 등
마을문화센터 숨씨협동조합	교육 서비스업	2015	다중이해 관계자	마을문화센터 운영, 소품 판매 및 전통요리교육, 취약계층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 사업 등

34 |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여성일자리 확대방안

협동조합명	업종	수리 (인)개일	유형	주요내용 (수익사업)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13	다중이해관계자	HIV/AIDS 감염인 직업훈련
아가쏘잉협동조합	제조업	2015	직원	미혼모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식교육 및 일자리창출 사업 핸드메이드 수강사업
유엔드 협동조합	교육 서비스업	2018	사업자	아동청소년 노인정서치유서비스
대구반려동물협동조합	도매 및 소매업	2019	사업자	애견미용사업 반려동물 관련 물품 판매 및 공동구매 등
디지아트쉐어협동조합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16	사업자	문화예술기획 및 참여예술 공연, 통합문화예술교육 등
우리동네여·행로즈협동조합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14	직원	전문수납관리 및 가사 서비스사업 돌봄서비스, 심부름서비스 사업
동네책방협동조합 (책방 I)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17	다중이해관계자	도서판매, 출판, 대외협력. 문화교육사업 등

나. 사례조사 결과

1) 강북희망협동조합

□ 조합 설립배경 및 목적

강북희망협동조합은 2015년 5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조합원은 약 300여명이며 직원 13명이며 이중 여성은 11명으로 여성고용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강북희망협동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조합원 수가 많다.

엄마들과 고민을 이야기하다 친환경 먹거리를 위한 고민을 통해서 집 밖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믿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안심 먹거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협동조합을 시작하였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운영

한 경험을 통대로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생각을 토대로 8명이 모여 강북희망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삼백식당’을 개점하였다. 그리고 2018년 11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서 운영 중이다.

□ 조합의 운영: 구성원, 주요 사업 및 활동

협동조합의 주된 활동은 반찬 사업과 대구 먹거리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대구의 사회적 경제 안에 있는 먹거리 기업들이 모여서 웨딩사업인 베리쿵이라는 브랜드(과뿌리 웨딩)를 만들어서 음식을 제공하고 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복지관과 연계해서 한 그릇 나눔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축제에도 참여하였다.

마을 안에서는 강북 풀뿌리 협의회를 통해서 어린이날 행사, 가을에 열리는 마을 축제에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를 통해서 환경친화적인 하천조성, 방과 후 교육인 마을교육 나눔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 요리와 함께하는 식생활교육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스스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와 바른 식생활을 함께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식생활교육을 통해서 좋은 재료를 고르는 법부터 양념 만드는 법, 혼자서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 등을 지도하고 있다. 최근에 5060 남성을 대상으로 한 요리 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여 사업을 확대하였다.

조합원은 약 300여명, 직원은 13명이며 직원과 조합원은 대다수가 여성이며 직원의 경우 50~60대 여성이 다수였다. 협도조합 대표는 북구 사회적경제 협의회 회장, 대구 사회적기업 협의회 이사 등 사회활동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었다. 조합원은 매장에서 가입을 받고 있으며 직원은 일반적인 채용 경로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다. 직원이 함께 오랫동안 일해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일반 식당과 비교했을 때 노동 강도는 상당히 높아서 직원의 이직율이 높은 편이었다. 사업에서 일자리 지원을 받고 있어서

취약계층 50%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조리사는 여성 고령자들이 많은 편이었다.

□ 조합의 여성친화성

대부분 여성들이 협동조합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일가정양립과 관련, 여성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는 않고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에 집중되어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조리사와 홀 서빙 직원의 경우 청년층을 시간제로 활용하고 있지만 성별을 구분하여 채용하지는 않았다.

직원은 일반적인 채용 경로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남성 직원이 적기는 하지만 성별에 따른 업무 차이는 별로 없고요, 저희는 일자리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취약계층을 50 퍼센트 이상 고용을 해야하거든요.....(협동조합 대표)

그 전에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으나 협동조합 대표로 일을 하면서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게 되었고 조합원 가족들도 지원자로서 함께 성장했다는 장점이 있었다.

저는 제가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키우고, 사회 생활 같은 걸 해본 적도 없는데. 그 과정 안에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주부가 이렇게 협동조합의 대표로 지역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가족들도 다들 성장을 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별로 강요를 할 일이 없는 거죠. 본인의 삶을 본인 스스로가 조절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협동조합 대표)

□ 여성일자리로서 필요한 지원 및 시사점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경단여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통한 경단여성 고용 시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협동조합 운영 및 참여 전

에 협동조합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가진다면 운영에서 유리한 점을 가질 수 있다.

여성들이 일을 하려면 협동조합 사업 모델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그리고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지 않는 사업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창업을 위주로 할 건지, 아니면 기존의 협동조합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먼저 할 건지, 그것을 우선 구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지원을 하더라도, 저희는 채용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경력단절여성이에요. 청년은 청년대로, 고령자는 고령자대로 패스가 되는데, 경단녀는 지자체의 기준도 너무 다르고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그래서 저희는 경단녀는 채용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경단녀에 대한 합의가 된 기준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주 심플하게, 4대 보험 경력을 본다거나...그리고 여성들이 집에서 육아를 하거나 다시 일을 할 때,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일정적인 기간동안 여성들이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거나 해야 하지 않을까...(협동조합 대표자)

또한 여성일자리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갈등문제이며 전반적으로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서류처리 등 행정적인 업무가 어려운 점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의 한 형태로 협동조합을 만들고부터 수익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협동조합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을 생각을 할 때, 사람 다섯 명만 모이면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협동조합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협동조합도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의 법인이라고 생각해요, 주식회사처럼. 법인을 운영하기가 그렇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협동조합을 만들고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법인을 설립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체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보통은 운영을 할 때 갈등이 많이 발생해요. 누구는 쉽게 가려고 하고, 누구는 더 열심히 하려

고 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열심히 하고, 똑같이 동의를 하면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서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이 없이 시작을 하면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거죠.....(협동조합 대표자)

2) 마을문화센터 솜씨협동조합

□ 조합 설립배경 및 목적

솜씨협동조합은 2015년 7월 3일에 설립되었으며 조합원은 약 10여명으로 소규모 협동조합이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하여 협동조합 운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마을기업을 하면서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끼리 재능을 활용하여 활동하고 교육을 통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법인 형태의 하나인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 조합의 운영: 구성원, 주요 사업 및 활동

소규모 협동조합으로 조합대표자가 회의, 사업계획, 실행을 모두 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외부활동도 대표자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구성원은 실무자(이사, 회계)가 있고 이사는 4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30-40대 여성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체적인 사업은 교육, 식생활 (요리) 교육, 공예 교육. 회의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강사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정기모임은 주 2회 정도 개최되며 마을 행사를 1년에 2회 정도 주최하고 있으며 장애인 대상 교육 재능기부활동, 어린이날 무료체험, 바자회 등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다.

□ 조합의 여성친화성

조합원이 모두 여성이어서 업무적인 측면에서 힘든 점이 있으나 조합원이 기혼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서로를 이해하고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로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 일·가정양립은 쉽지 않았다.

여성이 일을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힘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밤 늦게까지 일을 하지는 않고, 융통성 있게. 구성원이 모두 여성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원이 모두 기혼이어서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협동조합을 통해서 돈을 벌기가 참 어렵거든요.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경제적인 영역을 채워주기 위해서. (협동조합 대표자)

협동조합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대외적인 활동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지게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회의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소모적인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힘든 건 대외활동. 특히 영업적인 부분에서, 개인적인 성향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남자들처럼 막 술을 마시거나 대외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회의가 자주 있기 때문에. 협의체도 있고,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의체에 여러번 참여해요. 성서 지역 안에서도 지역 네트워크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회의를 위해 시간을 소모하기가 힘들어요(협동조합 대표자).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기획, 관리 등 개인적인 사업가로서의 역량이 크게 성장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수익적인 부분 외 사회공헌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일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꾸려 나가는 부분에서 생각 자체가 좀 커졌다고. 마을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주최를 하는 부분 (1년에 두 번씩), 장애인 분들에게도 교육을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5월 어린이날 무료 체험, 10월 바자회 같은 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수익금은 기부를 하고요.(협동조합 대표자)

□ 여성일자리로서 필요한 지원 및 시사점

협동조합은 마을기업(행정자치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등 사회경제적 조직 활동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도출되어야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협동조합 간 혹은 내부적인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이 우선 지원되어야하며 협업화 사업 공유 공간도 필요하였다.

사회적 경제인데도 특이하게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관할이고 마을기업은 행자부 관할이에요. 이렇게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라고 묶이기가 조금 이상해요. 알력 다툼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자주 싸운다고들 해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의 질문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그때에는 배려가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협동조합의 운영 이외에 이해, 교육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화 사업이 많이 내려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나는 내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 기업 일을 접고 다른 기업과 협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협업화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협업화 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등도 제공을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협동조합 대표자).

협동조합 형태는 동일한 생각이나 취미, 활동 등을 하는 여성들에게 접근이 쉽기 때문에 멘토링 등을 통해서 지원에 도움을 주어야하며 협동조합 역시 아이돌봄, 집안일 등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협동조합은 일반 회사보다 여성들에게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성들은 우선 끼리끼리 모여서 무엇인가를 많이 시도를 하기 때문에, 꾸러미 사업이나 동아리 사업이 협동조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전문가가) 붙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여성들에게는 아이돌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집안일 같은 경우. 이런 건 협동조합 뿐만아니라 모든 일을 하는 엄마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여성들이 사회적 영역으로 나올 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지원이나 관리 등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협동조합원들은 대부분이 경력단절여성이나 경제활동을 처음 시작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은 했더라도 대부분 공적인 사회활동이 처음일거예요...(협동조합 대표자)

3)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 조합 설립배경 및 목적

레드리본 사회적협동조합은 미국의 하우스링 워크스(Housing Works)를 벤치 마킹해 2013년 7월에 인가되었다. 설립 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기 청년등 육성사업참여로 사회적기업 빅핸즈를 운영하였으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후 빅핸즈가 현대 정몽구재단 H온드림오디션에서 소셜카페로 선정되었다.

레드리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셜카페 빅핸즈는 국내 최초 HIV/AIDS 감염인과 비감염인이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인과 비감염인이 함께하는 공간, 감염자 조합원들에게 일자리제공 등을 통한 자활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한국정보화진흥원 2층에 빅핸즈 2호점, 한국가스공사 1층에 3호점도 오픈하였다.

□ 조합의 운영: 구성원, 주요 사업 및 활동

조합원은 전체 30명 정도이며 직원 8명, 자원봉사자 7명, 후원자 16명 정도이다. 임원은 이사장 1명, 이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 9명 남성2명, 여성 7명 정도이고 연령층은 20대~5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의사결정은 이사회, 직원회의 등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였다.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은 빅핸즈라는 소셜카페를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하나의 수익모델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이며 지정기부금단체이다. 빅헨즈는 HIV / AIDS 활동가, 후원자, 봉사자, 감염인 들이 이끌어가는 카페로 이윤추구보다는 이들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감염인 자활 지원을 위한 전문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빅헨즈 카페의 수익금 전액을 에이즈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공간대여도 하고 있다. 그리고 동구에 있는 사회적기업들과 연계하여 재료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물품을 납품하였다.

□ 조합의 여성친화성

일·가정양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직원들 중에 아이돌봄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개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었다.

여성은 몇박 몇일로 교육을 가고 하기가 어려워요. 남편이 완전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여전한 가부장적인 한국 남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편에게도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맞춰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일상 생활 속에서 남편과의 역할 분담을 하고, 남편은 잘은 못하지만. 일이랑 가정을 양립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직원들도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이 때문에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근무시간을 조정을 해주신 경우도 있고, 최대한 맞추는 상황이죠(협동조합 조합원 a).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없었으나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무교육, 소통교육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협동조합 가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활동을 지원하였다.

개인의 역량적인 측면에서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내 일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고, 어느 일을 하러 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직원들이 보면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트러블이 있으니까 직무 교

육, , 타로 특강 같은 걸 한다거나. 그 외에도 사회적 경제 교육, 에이즈에 대한 교육...(협동조합 조합원 a).

□ 여성일자리로서 필요한 지원 및 시사점

협동조합 운영이 쉽지 않은 부분이였다. 특히 법인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야하는 것과 은행에서 대출이 일반기업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였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여성기업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 혜택을 가질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운영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였다.

우리는 사회적기업인데, 우리는 여성 기업이 안 돼요. 여성 기업은 상법상으로만 설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표가 여성이고, 여성 근로자가 많기때문에 여성 기업이 분명한데.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된 게 있어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그래서 여성 기업이 될 줄 알았는데, 기재부 통화를 하니 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협동조합만 된다고. 여성 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시 일반 협동조합보다 실적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힘들어했어요.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갔을 때, 비영리인데 왜 영리적인 카페 형식인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기준은 애초에 한국의 기업적인 기준과는 다른 거예요. 회계 같은 것도 모두 기본 기업에 준해서 해요..... 법인세 혜택이라던가. 지금은 사회적 기업이면 3년까지 법인세 혜택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대출 같은 것도, 대표 개인을 보고 있는 게 문제죠. 지금은 그나마 금융권에 사회적 연대기금들이 있어서 조금 더 우호적이기는 해요(협동조합 조합원 a).

4) 아가쏘잉협동조합

□ 조합 설립배경 및 목적

아가쏘잉협동조합은 2015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미혼모들의 경제적

44 |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여성일자리 확대방안

자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혼모 시설에서 미혼모 교육, 재봉교육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미혼모들이 시설에서 퇴소를 했을 때 자립기반이 없어서 곤란해 하는 걸 보면서 초기에는 공방처럼 시작했다. 공방은 가장으로서 자립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미혼모들이 협동문화를 익히고 주체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협동조합은 1인 1투표제라 권리를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여 협동조합 형태를 선택하였다.

□ 조합의 운영: 구성원, 주요 사업 및 활동

조합 구성원은 준조합원 40여명으로 이중 여성 12명이고 이사 3명 모두 여성이며, 그 외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운영은 대표자 1인이 책임지고 있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유통, 생산, 지원, 미혼모복지 관리 등 다양한 업무가 많지만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역할분담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에게 일을 주어서 현재 조합원 중 자원봉사자가 일을 하고 직원으로 고용된 여성은 급여만 받아가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미혼모의 경제적지원을 위해서는 핸드메이드 제품 생산하고 정서적 자립 지원을 위해서 전문 상담가, 의사, 종교인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이나 일을 해야 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베이비시터 역할, 집안일에 대한 상담도 같이 병행하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에서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확대하고 있었다.

□ 조합의 여성친화성

협동조합 운영자 개인적인 역량은 매우 늘어가지만 단순 참여자인 조합원들의 역량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조합원들이 대부분 동네 주부들이어서 조합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서 개인역량을 키우고 네트워크도 확산되어가고 있다.

개인적인 역량은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고, 구성원들을 봤을 때 교육을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는 없지만 아주 미세한 변화는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의 영향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고요. 하다보니까 조금씩 눈도 뜨이고,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이면서 마을기업이기도 해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엄마들과의 관계, 지역 사회에서의 네트워킹도 많이 잘 다져진 것 같아요. 저희 이름이 브랜드 네임처럼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협동조합 대표자)

아이를 키우면서 현실적으로 협동조합 운영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나 지원은 없었다. 협동조합을 하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협의와 합의가 있지 않으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돌봄 등이 이루어졌다.

일 가정은, 처음에는 일을 하면서 여섯 시가 되면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고 그랬는데. 유급 근로자들이 일을 못해내니까 나머지 시간들을 제가 일을 해서 기업적인 면모를 채워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은 친정어머니께서 가정을 돌봐주고 있고. 가정이 많이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여성이 조합 활동을 못하는 가장 큰 부분은 육아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여성들의 발목을 가장 크게 잡거든요...(협동조합 대표자)

□ 여성일자리로서 필요한 지원 및 시사점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였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일을 하면서도 육아책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였다.

협동조합에 대해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현재 내 포지션은 무엇이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발심을 하도록 만든거...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발심을 찾도록 하는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성이 조합활동을 못하는 가장 큰 부분은 육아가 아닌간 싶어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여성들의 발목을 가장 크게 잡거든요(협동조합 대표자).

5) 유앤드

□ 조합 설립배경 및 목적

유앤드 협동조합은 사회복지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이 경력단절 후에 일을 다시하기 위해서 2018년에 설립하였다.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방식, 수평적 관계 등의 원칙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맞아서 법인형태로 협동조합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취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컸고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했을 때 직무소진이 심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사회복지사 선후배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 조합의 운영: 구성원, 주요 사업 및 활동

현재 조합원은 5명으로 소규모 협동조합이며 남성 1명, 여성 4명으로 조합원 모두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사업 대부분을 협동조합 대표자가 전담하는 등 운영에서 대표자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표자는 대외적인 활동, 사업발굴 및 계획 등을 하였고 조합원인 사업 실무자 2명은 바우처 사업을 직접 운영하였다.

유앤드 협동조합의 수익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전자 바우처 형식)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주로 노인대상 정서·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구성원 모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기획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경력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2019년 4월에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위해 공유 사무공간도 운영하였다.

□ 조합의 여성친화성

협동조합을 운영하지만 일·가정양립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사회복지사업은 손이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출산·양육 시기에 있는 여성들이 일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조합원들끼리 시간을 조율하여 근무함으로써 민간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일·가정양립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아무래도 가정이 있으니까 일 가정 양립이 어렵죠. 그런데 사실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협동조합 하시는 여성분들도 사례 공유 같은 걸 들으러 가보면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성공 사례 같은 것도 대부분 여성 대표님들이시고.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 이전 직장에서는 아기가 없었지만, 그때는 탄력근무 같은 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일이 워낙 많으니까 사회복지기관은 그런 걸 잘 못 하거든요, 있어도 형식적이라던가. 그런데 저희는 일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일이 좀 더 쉽죠. 제 자녀는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협동조합 대표자).

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교육의 기회를 많이 받게 되어 개인적인 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저는 1년 딱 됐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많이 성장했다는 건 느끼고 있어요. 사실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정말 많아요. 최근에는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 과정도 수료했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협동조합 전문가, 운영자로서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지 않나.....(협동조합 대표자).

□ 여성일자리로서 필요한 지원 및 시사점

협동조합은 여성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

하며 실제 협동조합 대표들 중에 여성이 많다. 하지만 여성들이 협동조합 가치와 운영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일자리 하나를 대체되기 위해서 양육지원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였다.

정책적 지원이 많이 필요하죠. 사실 협동조합이 사업체로서 적정 선에 올라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저희는 처음에 임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출자금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4대보험 가입도 안 되고, 어린이집에 애를 보내는데도 맞벌이로 봐주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협동조합이 노동법의 기준에 꼭 부합하지 않더라도 맞벌이로 인정을 해줘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거나...이제 협동조합 시작한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여성들한테 협동조합은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근데 협동조합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그런 관련 교육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많이 알아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협동조합이 여성들에게 좀 더 대안적인 경제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사회복지사 10년으로 일을 하면서 기관장들이 대부분 남자였고, 여성 대표를 잘 못 봤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여성 대표님들이 정말 많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공 사례 같은 것도 좀 더 발굴이 되고,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협동조합 대표자).

6) 대구반려동물산업협동조합

□ 조합 설립배경 및 목적

대구반려동물산업협동조합은 2019년 설립되었으며 “함께하자냥“이라는 무료애견동반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협동조합 설립 참여자들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교육(미용도 있고, 수제 음식, 행동심리, 훈련사 등) 선생님들이었다. 이들은 달서구청 반려동물에 관한 경력단절여성 교육을 하면서 교육생들의 취·창업 고민하게 되었고 달서구청의 지원으로 교육훈련생의 취·창업을 위한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하여 취, 창업으로 연결이 되려면 실력이 보증되어야 하였다. 그리고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한 기관들 간 네트워크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각 분야 교육과정 선생님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경력단절여성을 교육하고 취업까지 이어지게 하고자 하였다.

□ 조합의 운영: 구성원, 주요 사업 및 활동

현재 소규모 형태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장이 주도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조합원은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이 있으며 정조합원은 각자의 출자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현재 5명 모두 여성이다. 정조합원은 미용 교육 강사, 수제 음식 교육 강사, 행동 심리 교육 강사, 펫 아로마 테라피 강사, 펫 타로 강사, 반려견 훈련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준조합원은 협동조합에서 수강을 받았던 사람들이면 모두 가입이 되고 시설(펫케어 공간)을 조금 더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에 이용하고 간식 구매, 미용 등을 위해 협동조합을 활용하였다.

□ 조합의 여성친화성

협동조합 운영으로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야가 개인적으로 일을 할 때보다 확대되어 개인적인 역량이 강화되었다.

사회의 인식의 변화. 그 이전에는 뭐라고 하지, 그냥 나에 안주 되어 있는 삶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좀 주변을 돌아보는 삶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사회에. 저희가 지금 예비 마을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사회의 문제점이나 우리 마을에 대한 문제점, 인식 개선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고....(협동조합 대표자).

그러나 협동조합 규모가 작아 대표자가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게 되어 사업운영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일·가정양립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일·가정양립은 가족들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데 양육기 아이가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느정도 아이가 성장했을 때 일을 생각할 수 있었다.

가족 관계는, 그 이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경력 단절이었으니 그냥 가정에서 아이들만 케어를 했고... 그러다가 애들이 일정 부분 성장 후에 다시 일을 하게 돼서, 가족 관계라 하면 애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오히려. 어릴 때는 일하는 엄마가 싫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일하는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남편은 일 하는 것에 대한 반대呀. 애들한테는 멋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남편은 불편해하는. 그리고 이게 협동조합이다보니, 제가 대표자라고 해도 같이 꾸려 나가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시간 같은 게 투자가 많이 돼요(협동조합 대표자)

□ 여성일자리로서 필요한 지원 및 시사점

경력단절여성들에게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단순히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여를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동조합에 참여하여 일을 하고 싶은 여성들이 있다면 이들을 발굴하고 교육을 지원하여 협동조합을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여자들이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에 눈을 뜨는 나이가, 어린 나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고,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에 관심을 두고 찾으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경력 단절이거나, 아예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예요. 이런 분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뭔가 활동을 한다거나, 역량을 개발 한다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이점을 갖고 싶다고 하면, 그 분들에게 먼저 투자를 해야 하고 그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하도록 만드는 사이클이 돌아야 하는데.....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교육을 해야 하고, 교육의 수혜자들이 이분들이면 본인들이 돈을 내고 나오기가 힘들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은 조합이라고 치면 초록 마을 같이 뭔가 조합비를 내고 운영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어 하는데... 수혜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 내고 이걸 배워서 조합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교육비 지원이라던가. 교육비 지원을 받으면 교육 받을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협동조합 활동을 하자고 돈을 내고 배우시는 분들은 없는 거죠...(협동조합 대표자)

그리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원래 취지에 따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고민하게 되지만 마땅히 조언을 구할 곳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협동조합 설립 전·후 멘토링 프로그램 혹은 협동조합 교육 등을 통해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카운슬링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출발할 때 사전교육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도 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격은 이렇지만, 협동조합 설립 취지에 맞게 잘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리고 다른 협동조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냥 대표자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게 다거든요. 모임들은 있는데, 그 안에서 나누는 정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것 외에, 우수 기업이 사례 발표를 하듯이 모델링을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시작을 할 때 멘토링이나 모델 같은 게 없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가 엄청 힘들더라고요(협동조합 대표자).

7) 디지아트웨어협동조합

□ 조합 설립배경 및 목적

디지아트웨어 협동조합은 공연예술문화교육을 위해 2016년 설립되었다. 여생인력지원센터 공연문화예술 협동조합 설립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 중 생각이 같은 사람 6명이 함께 일을 하면서 수익도 조금씩 창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모아 협동조합을 시작하였다. 협동조합을 통해 수익적인 목적보다는 동아리모임 수준으로 생각하여 협동조합 설립하면서 각자 출자금을 50만원 정도를 내어 운영하였다. 그리

고 활동 공간은 달서구 웃는얼아트센터 등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빌려서 사용하여 공연을 준비하였다.

□ 조합의 운영: 구성원, 주요 사업 및 활동

협동조합 설립 시 정관 작성, 재정지원, 법률지원등 대부분 여성취업지원기관에 도움을 받았고 대구시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었다. 조합원은 6명으로 남성 1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원들의 40대후반에서 60대이하이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력이 다양하였다. 조합원들의 역할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고 주로 대표자의 주도로 협동조합 사업이 운영되었다. 신입회원을 받는 등 사업 및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부분은 회의를 통하여 의견은 나누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설립하고 난 뒤에 한번 공연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공연에 대한 문의가 없고 조합원들의 활동에 대한 낮은 관심과 운영의 어려움으로 현재 협동조합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조합의 여성친화성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협동조합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협동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참여자의 개인적인 역량은 향상되었다. .

협동조합을 배우고 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어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작은 사회를 경험하게 되고 분쟁 속에서 협동조합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관을 다시 보고 찾아볼려고 노력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계속적인 분쟁과 다툼이 반복되면서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주변에 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쩌면 다툼만 봤을 것 같아요. 전 정관을 다시보려고 하고 의견을 내고 논리를 이해하려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

는데 달래기만 했고 의견을 내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공격에 지치게 되고 힘들었겠지요. 논의의 중심에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상하기도 하고 자세히 들여다 보는 과정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협동조합 대표자).

□ 여성일자리로서 필요한 지원 및 시사점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여성들에게 협동조합 가치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조금 더 구체적인 멘토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동조합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처리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행정서류 처리 등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금은 생략화적인 행정부분도 고려되면 좋겠어요. 서류가 간소화되면 좋겠고, 꼼꼼하게 멘토링해주는 기관이 있거나 정관이 무엇인지, 어떤요소가 중요한지 등 정관의 샘플들을 보여주면서 자세한 맞춤식 멘토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여성들이 시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업을 했던 여성이라면 조금 더 쉽게 시작하지 않을까요? 마음 맞는 우리끼리 해보자라는 부분과 형태는 정말 접근성은 높을지 모르나 효과성은 완전 떨어질 것 같아요.. 슈퍼비전이나 모니터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회의하는거 몇 번 봐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팀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나름대로 깊은 이야기도 하게 되고 나눴지만 깊이 관여해주거나 도와주는 건 없었어요 (협동조합 대표자).

8) 우리동네여행로즈협동조합

□ 조합 설립배경 및 목적

우리동네여행로즈 협동조합은 원래 심부름센터 협동조합으로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2017년 우리동네여행로즈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초기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최근은 일반인도 참여 수요가 많아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우리동네 심부름센터

라는 가치가 맞지 않아 여성이 행복한 협동조합이란 뜻을 담을 수 있도록 이름을 변경하였다. 우리동네여행로즈 협동조합은 수성여성클럽에서 정리, 수납 직업훈련과정을 했던 초창기 멤버 17명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였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과 일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틈새시장인 가사,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 사무실 공공시설 등 전문수납정리서비스, 아이·노인 대상 돌봄서비스, 학교안전도우미, 자녀 준비물 배송대행, 우편 및 택배접수 등 심부름서비스, 집안청소, 설거지, 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조합의 운영: 구성원, 주요 사업 및 활동

직원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조합원 20명 정도이며 대부분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30-40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훈련을 받은 여성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행로즈센터는 가사, 수납, 돌봄, 기타 서비스 등 네 개 활동으로 나뉘어져 있고 직업훈련을 받은 훈련생들이 조합에 참여하면서 강사활동을 많이 한다. 그리고 수성구 지역아동센터 부모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셀프수납법 강의 등을 통해서 자체 사업 활동도 하고 있다. 사무공간은 수성여성클럽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강의 의뢰도 수성여성클럽을 통해서 받고 있다.

□ 조합의 여성친화성

협동조합에 참여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어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력을 살릴 수 있어 경력단절여성에게 필요한 일자리가 될 수 있다.

내가 내 자존감을 높여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공동체에 소속되는 건데. 그래서 힘들어도 내 뜻은 거기 있어요, 경제적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

록 여성들이 모이는 것. 제가 자랑하는 건, 우리처럼 전문적으로 소득세, 재무, 컨설팅,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곳이 없어요. 자부심을 느껴요.....고급스럽지는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사회를 배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경력단절여성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협동조합 대표자)

협동조합은 시간제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면서 일하는 게 매우 유용하고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의견도 구할 수 있어서 유익하다.

저는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이 너무 좋아서 예전에 기업에 소속되어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고....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지금은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기 훨씬 쉬워졌죠. 지금은 조합원들이 있으니까 협력을 할 수 있고, 일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협동조합 대표자)

□ 여성일자리로서 필요한 지원 및 시사점

경력단절 여성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단절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력도 약하다.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와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취약하고 협동조합의 운영방향을 놓칠 수 있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여성들로 구성이 되니까 몇 가지 핸디캡이 있는 건 맞아요. 거시적인, 멀리 보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않는 것 같아요. 교육 같은 것을 제공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정기 총회 같은 걸 해도, 주기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하거든요. 분기에 한 번은 정확하게 모인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정보 공유도 원활하게 잘 안 되고. 행사가 있을 때만 단발적으로 만나서 행사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회적 경제 교류의 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보 전달과 소개가 메인이 되어야 하고, 네트워킹 방식을 모색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요...(협동조합 대표자).

9) 동네책방협동조합-책방 아이(i)

□ 조합 설립배경 및 목적

동네책방협동조합은 ‘책방아이(i)’를 본부로 두고 있으며 2017년에 설립되었다.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에 밀려 사라져가는 동네책방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둔 여성 5명이 참여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대구 동구 지역의 문화와 책을 나누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동네책방협동조합은 이름처럼 ‘동네’에 ‘책방’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조합원들이 꾸려가는 공간이다. 그리고 현재 조합에 참여자들은 취향이 비슷한 책방 주인과 고객 간의 소통은 물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아이디어로 마을공동체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 조합의 운영: 구성원, 주요 사업 및 활동

동네책방협동조합은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며 여성 5명이 주로 동네책방 아이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총 조합원이 40명 정도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합원은 상시모집을 하고 있으며 주로 30-40대 여성이 많다. 대부분의 조합원이 여성이며 남성은 4~5명 정도 있다. 협동조합의 활동과 기획은 이사진들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합원들과는 1년에 한 번 총회가 이루어지며 한 3분의 1정도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다수 출자금은 이사진이 내고 있지만 조합원분들도 출자금을 내고 있어 책방아이를 운영하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은 마을기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책방아이를 통해서 도서판매, 출판, 대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마을기업 축제, 어린이날 행사 등도 진행하고 있다.

□ 조합의 여성친화성

동네책방협동조합은 마을을 중심으로 책방아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 가사 등 일·가정양립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는 운영자들 간의 합의를 통하여서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고 공간을 통하여서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공간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기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아직은 아기가 어려서 그런 효과는 없는데, 잠재적인 장점이 있다고 봐요. 제가 사교육을 했던 때는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는데, 여기는 출퇴근이 자유로워요(이사a).

협동조합은 결정사항이 있을 시 다 같이 논의하는 수평적인 회의방식, 사회적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일에 참여함으로써 여성스스로 느끼는 성취감, 자아실현, 사회기여라는 측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여성일자리였다.

우리가 마을에서 장사를 하지만 한 마을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기업이라기 보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 협동조합들이 의논하고 회의하고 하는 것들이, 마을에 어떤 일을 더 할까, 이런 거거든요. 마인드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단순히 소비하고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소비, 생산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 무조건 물건을 판다기 보다는.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게 치열한 장사라기보다는, 꿈을 이뤄가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기에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남성은 가정의 큰 수입을 생각해야 하잖아요. 저희는 협동조합이기도 하고, 큰 수입이 나지 않아서 가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여자들은 내 용돈벌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되게 일하기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이사a).

□ 여성일자리로서 필요한 지원 및 시사점

협동조합으로 참여 할 경우 일정한 수입과 안정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특히 서점이라는 업종을 선택했기에 일반기업보다 낮은 경쟁성, 협동조합 유지가능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였다.

협동조합은 자생을 해야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지원금은 1년이면 끝날 수 있고, 2년이면 끝나는데. 사실 수익 구조가 그렇게 잘 안 돼요.....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 할 여력이 별로 안 되는 게, 서류상의 문제 때문에 4대 보험에 올리지 못한다거나, 그런 건 있는데... 저희는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받는 수준이에요. 아직도 최저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보험을 못 드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법 안에서 의무화되고 당연시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봉사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요.

협동조합은 경력단절여성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 지원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여성일자리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도 주어져야 한다.

협동조합은 아무래도 다른 기업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열려 있죠. 그런데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같은 건 지원을 해주잖아요. 여성 일자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일이라는 게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배우고 배우게 되면 느는 거니까. 협동 조합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데, 늘 가장 큰 문제는 임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곳에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경력단절여성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인데. 엄마들이 우선은 자격증을 따보려고 해요. 그런데 자격증을 따는 돈도 만만치 않아요.

다. 사례조사 협동조합 특성

사례조사 협동조합의 조합 설립배경 및 목적, 조합의 운영(구성원, 주요 사업 및 활동), 조합의 여성친화성 등을 바탕으로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설립일자를 기준으로 운영기간은 크게 3년 전후로 구분되며 조합성격이 조합원들의 필요충족을 위한 것인지 수익창출을 위한 것인지로 구분될 수 있다. 수익목적을 가지고 있어 사업체 성격이 강한 협동조합들은 주로 사회적기업 사업, 기초자치단체지원 사업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필요충족을 위해

설립되어 결사체적 성격이 강한 협동조합들은 주로 마을기업을 운영하여 마을에서 소비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협동조합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전 일 경험은 생활협동조합 참여, 봉사활동, 경력단절 상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방향 및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협동조이 단순히 관심분야가 같거나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 수준으로 생각하고 설립하여 운영했을 때 협동조합의 유지나 성장에서 한계점이 보였다.

<표 III-2> 사례조사 협동조합 특성 정리

협동조합명	운영기간	조합성격	조합목적	연계사업	참여자일경험
강북희망협동조합	4	사업체 (수익목적)	친환경먹거리 생산	사회적기업	생협활동 경험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6	사업체 (수익목적)	에이즈 감염인 일자리 창출, 감염인 인식개선 자활 지원	사회적기업	봉사 및 사회활동
유앤드협동조합	1	사업체 (수익목적)	경력단절여성이 일하기 위해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뭉침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사회서비스업	사회복지사, 경력단절여성
대구반려동물협동조합	0	사업체 (수익목적)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연결을 위한 목표	기초자치단체지원사업, 마을기업	경력단절여성
마을문화센터숨씨협동조합	4	결사체 (필요충족)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끼리 모임	마을기업	생협활동 경험
아가쏘잉협동조합	4	결사체 (필요충족)	미혼모 봉사활동 모임으로 시작. 미혼모들의 경제적 자립지원	마을기업	봉사 및 사회활동
디지아트쉐어협동조합	3	결사체 (필요충족)	공연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 모임. 여성취업지원기관 협동조합 직업교육과정으로 설립	남구지맞춤사업	경력단절여성
우리동네여·행로즈협동조합	5	결사체 (필요충족)	여성취업지원기관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한 협동조합설립	-	경력단절여성
동네책방협동조합(책방 I)	2	결사체 (필요충족)	지역의 문화와 책을 나누고자 함	마을기업	소비자협동조합활동

협동조합 운영기간과 조합의 성격은 향후 여성협동조합 설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협동조합 주체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협동조합의 운영형태를 다르게 접근해야하기 때문이다. 여성협동조합이 설립된다면 두 가지 경우가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수익적 목적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가지고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협동조합 운영을 통해서 기대만큼의 임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필요충족에 의해서 설립된 경우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느슨하게 조직이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어떤 욕구에서 출발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수익목적이 아니라 필요충족 목적인 경우 여성이 협동조합에 참여하기 더 쉬울 것이다.

협동조합 일자리는 높은 임금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수평적인 관계, 민주적인 의사결정, 인간관계 등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나 자조모임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하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로서 이점을 줄 수 있다. 다만, 설립 후에 협동조합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경제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기업성에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사례조사 협동조합도 이러한 맥락에서 분류해보면 수익목적이 강한 협동조합(강북희망협동조합,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은 기업적인 성격이 강해서 수익사업을 브랜드화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합원 수가 증가되면서 조합원들에 의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등 선순환적인 구조로 운영되어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설립기간이 짧은 협동조합도 바우처사업, 지역맞춤형사업 등 정부사업과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생력을 높여 나갔다.

한편, 필요충족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은 전반적으로 수익사업을 찾고 있지 못했다. 이들 협동조합은 좋은 목적을 가진 결사체 혹은 모임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수익사업을 찾지 못해서 자립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익사업을 브랜드화하여서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동네책방협동조합)은 설립된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운영이 잘되고 있었으며 여성친화성도 높았다.

		조합성격	
		사업체 (수익목적에 의해 설립)	결사체 (필요충족에 의해 설립)
운영 기간	3년 초과	강북희망협동조합(삼백식당)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빅 핸즈)	마을문화센터 솜씨협동조합 아가씨협동조합 우리동네 여·행로즈 협동조합
	3년 이하	유앤드 협동조합 대구반려동물협동조합	동네책방협동조합(책방 I) 디지털아트웨어협동조합

2. 타 지역 여성협동조합 사례조사

가.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타 지역사례 선정

협동조합기본법(2012. 12)설립이후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협동조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대부분은 일반협동조합이지만 201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설립 수가 적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최근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오현경(2019)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동조합 업종별로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 농림어업, 제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순이며 이러한 업종이 설립협동조합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사회복지분야로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위 5개 업종별 누적 설립율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과 농림어업의 경우 비선형적인 성장 곡선의 형태로 업종군의 성장 추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태지만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누적 설립율이 선형의 형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은 협동조합이나 사업체 모두 양 분포에서 두 업종의 비중이 크고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육 서비스업, 농림어업이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과 운송업에서는 사업체에 비해 협동조합의 설립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국내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대구지역에서 여성의 협동조합 설립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분야의 타 지역 사례를 소개하고 특징을 분석하여 정책과제 도출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나. 사례조사 결과

1) 사회적협동조합 숲과 사람(경북 포항)

사회적협동조합 숲과 사람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숲 환경과 숲 문화 발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산림복지 실현을 목적하고 있으며 2017년에 설립되었다. 다중이해관계자 유형으로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숲 해설, 숲 안내 위탁사업 산림교육, 산림복지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3명의 직원을 중심으로 30명의 산림복지전문가와 10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2017년 산림청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최우수 산림교육 전문업체' 로도 선정되었다.

숲과 사람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창업아카데미 창업교육과정 수료를 통하여 마음에 맞는 산림복지전문가 2명과 함께 숲과 사람을 설립하였다. 협동조합을 통해 단순한 수익보다는 사회를 더 좋게 발전시킨다는 설립취지를 우선순위로 두었다. 설립당시 참여자는 생태교육과 숲 해설가 공부를 통해서 숲에서 활동을 시작하였고 한국 숲해설가 경북협회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으로 이어졌다. 숲과 사람은 대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의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초반기 각자의 역할을 명확 배분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조합원 대부분이 여성으로서 가

정의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협동조합 설립이후 남부지방산림청 숲해설 경연대회 및 전국 산림교육전문가 숲 교육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고 공공기관과 연계한 산림교육 진행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또한 적극적인 구성원 역량 개발에 힘입어 숲 해설 경연대회 수상자들을 배출하도록 하는 것 역시 협동조합의 활성화의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기존의 산림복지전문업체와의 차별화를 만들기 위해 산림복지 전문업에 다양한 사업을 접목시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에 주력하였다. ‘숲과 사람’을 대표하는 사업은 산림교육 분야이며 목공예교육 프로그램은 가장 반응이 좋은 사례이다. 이후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북형 행복마을 씨앗마을 사업공모에 선정, 포항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에코티어링 등 독새체험 교육운영, 삼성연수원에 강사 파견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숲 해설 특화사업을 준비 중이다.

2)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서울)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는 육아로 인해 경력이 축소/단절된 예술가들이 예술과 육아의 병행을 위해 고민하며 마을공동체라는 울타리를 만나 2017년에 설립되었다. 다중이해관계자 유형의 협동조합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창의적이고 열린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조합원의 창작안전망을 구축하며 나아가 문화예술의 발전 및 확산 기여하는 것이다. ‘아이야’라는 이름에 부여한 의미는 ‘나(I)’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을의 문화예술들판으로 ‘예술가와 시민 모두가 누리는 마을문화’를 소셜미션으로 하고 있다. 주요활동은 . 출장놀이단 아이야의 찾아가는 맞춤공연 ‘노는뮤지컬’, 출장놀이단 아이야의 찾아가는 맞춤교육 노는예술 강좌운영, 마을출판사 아이야의 노는 그림책을 출판하여 판매하고 있다.

아이야 협동조합은 극작가, 여배우, 무용 감독이 경력이 있는 여성들

이 출산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 기간을 거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연습할 장소를 찾던 동아리에서 출발을 하였다. 엄마가 되면서 포기해야 했던 공연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취미 동아리처럼 시작했기 때문에 수익을 내려 마음보다는 단순히 공연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결국, 강동구에서 사는 엄마들의 모임이 마을공동체가 된 후에 지역 극단들처럼 강동구를 대표하는 극단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2013년도에 마을공동체로 시작한 후에 2017년에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18년 서울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다. 협동조합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5년간의 경험이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고 시장을 조사할 수 있었다. 또한 극단 레퍼토리를 만들어 매출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었고 육아 부담을 가진 주부들도 공동 육아가 아닌 취미와 관련된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협동조합 활성화에 장점으로 작용 되었다.

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조직을 꾸리고 준비기간이 길었다 점은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다른 협동조합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점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육아로 인해 경력이 축소된 예술가에서 데뷔의 문턱이 높은 청년예술가, 은퇴가 빨라진 중견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대와 협업의 정신으로 문화소외지역과 계층으로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예술이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에 찾아가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봐야하는 공연 문화와 차별화된 사업운영 방식이었다.

3)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서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이하 도우누리)는 도우누리는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이라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대표 돌봄제공기관이다. 다중이해관계자 유형의 협동조합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도우누리는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시작한 것이 아니라 광진구 내 고용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통한 자활을 지원

을 목적 즉, ‘서비스 제공’이 아닌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탄생되었다. 도우누리협동조합은 광진구 지역자활센터 내 지역자활근로, 바우처 사업, 복권사업 등을 운영하는 ‘늘푸른돌봄센터’의 전신이다. 늘푸른돌봄센터가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던 2008년 독립해 도우누리가 창업되었고 법률정비 등의 문제로 2014년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늘푸른돌봄센터 초기에는 산모산후관리 서비스로 산후관리사와 신생아를 돌보는 사업을 진행했고 2010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2013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받았는데 협동조합 전환 초창기 전체직원 140여명 중 100여명이 출자를 했다. 2019년 현재 도우누리 조합원수는 700명정도이며 480명정도의 직원이 조합원이다.

도우누리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직원이 출자했다기 보다는 필요한 요건을 갖춘 뒤 협동조합 운동, 조합원 지위 획득 등을 위해 조합원들이 출자를 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현재 출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조합사업에만 활용되고 있다.

도우누리 주요사업은 재가서비스·이용시설서비스·사회서비스 등 돌봄사회서비스와 주거복지서비스(광진주거복지센터), 병원간병서비스(재활병동간병사업단_녹색병원), 고용서비스(SH희망돌봄사업단), 영양돌봄서비스(따뜻한밥상) 사회서비스이다. 돌봄서비스는 도우누리 사업 중에서 비중이 큰 부분이며 이용시설서비스는 이용자가 사업장에 와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돌아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서비스 중 하나인 주거복지서비스는 주거 임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임시주택은 물론 녹색병원 재활병동 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도우누리가 100%출자해 만든 식당 ‘따뜻한 밥상’에서 65세 노인이나 영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용역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해 돌봄직무 교육과직장 내 교육 후 시장에 내보내는 고용서비스도 진행예정이다.

3. 소결

○ 대구 여성협동조합 사례조사 시사점

협동조합 사례조사를 통해서 현재 여성협동조합이 가지는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및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협동조합 운영 혹은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경력단절을 경험했거나 주부로서 오랜 기간 생활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협동조합을 시작하기 전에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인 경우, 봉사활동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거나 사회문제(기존의 먹거리, 교육,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고민), 협동조합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참여 행태는 여성이 취업 시 본인의 기존 경험, 관심이 있는 분야를 토대로 일자리를 찾을 때와 유사하였다. 그래서 협동조합 설립 전에 협동조합 참여자 대상으로 협동조합 가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목적에 합의 후에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 협동조합 설립 시에는 중간지원조직 등의 도움으로 어려움이 크지는 않았다. 대부분 여성협동조합 운영자들은 설립이후 운영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협동조합 운영에서 조합원간의 의견충돌, 역할배분 등에 따른 갈등, 수익모델 혹은 비즈니스모델을 찾지 못할 경우 수익창출 미흡, 세금 및 신고사항, 법적인 서류 처리 등은 협동조합의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협동조합이 단순히 5인이 되면 구성하여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사회적가치(공익)와 경제적이익(수익)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활동, 사회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여성이 관심만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조합원들의 자발성 부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기간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전 교육에서 안내 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협동조합 운영에서 수익창출 되지 않아 사업 수익에 집중하게

될 때 협동조합 가치와 목적에 대한 방향성을 잃게 되고 협동조합이 비활동 상태이거나 성장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협동조합 설립시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설립 후 3년 이하 초기단계 협동조합 대상으로 정기적 컨설팅이 필요하다. 대부분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맞춤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하여 사업을 운영하되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유사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취업지원기관 혹은 협동조합지원기관 등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받거나 상시적으로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협동조합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기획능력, 인적 네트워크 확대 등 여성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사회문제 이해도 넓어지게 되어 스스로 자신감이 높아지고 가족 속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등 삶의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여성친화성 요인 중 일·가정양립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여성들 다수가 40~50대로 육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가족돌봄이나 가사를 병행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리고 30대 여성이 활동을 하는 경우 육아가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남편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이는 협동조합 이사장 혹은 대표가 대부분 기획, 실무 등 사업전반을 운영함으로써 1인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목적대로 조합원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될 수 있다면 여성친화성이 더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경력잇기를 할 수 있도록 여성취업지원기관과 중간지원조직간의 협력체계가 구축을 통한 사업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타 지역 여성협동조합 사례조사 시사점

앞서 살펴본 타 지역 협동조합 사례를 통해 대구 여성협동조합 설립

과 운영에서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협동조합 설립시의 참여자들은 사업 분야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모임을 통해서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여성자조모임으로부터 설립이 되더라도 초기 설립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해야 향후 운영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수익목적보다는 사람에 대한 우선적인 가치를 두었고 지역사회기여를 위해 사업발굴을 하였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가치는 곧 협동조합 운영의 방향성으로 이어져 수익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었다. 그리고 성장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공헌, 지역사회 기여라는 기본가치에 대해 흔들림 없이 꾸준히 협동조합을 운영하였다.

셋째, 각종 공모사업을 통하여 사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발굴에 노력하였다. 협동조합의 사업체적인 성격에 대한 노력을 위해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 지원사업 외에 공모사업이나 관련분야 정부기관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사례조사 협동조합들은 설립 시 결사체적인 성격에서 출발하였지만 사업발굴, 고용안정성 등을 위해서 사업체적인 성격으로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각 협동조합이 선택한 사업분야에서 기존업체와 차별성을 가지기 위한 노력하였으며 차별성을 통해서 협동조합 생산물에 경쟁력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의사결정권 기회가 부여되는 협동조합 형태 일자리의 장점이 최대한 잘 반영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참여자 다수가 여성으로 일·가정양립에 있어서 보육, 돌봄, 가사 등 가정 일에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자들 간에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 합의와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의사결정시 모두 참여를 통한 합의를 이루어내도록 운영하였다.

IV. 대구지역 협동조합 형태 일자리 여성 요구도 조사

1. 조사개요	71
2. 조사결과	73
3. 소결	86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및 설문문항

설문조사는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여성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파악하여 일자리 확대 가능성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사업과 연계 및 협동조합 운영 방안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그래서 조사대상을 여성취업지원기관 직업훈련생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대구시 소재 여성취업지원기관(5개소)의 직업훈련과정 중이거나 과정 수료생 500명을 대상으로 배포하였으며 31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은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에 의한 자기기입식 오프라인 설문 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9년 10월 17일 ~ 10월 31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문 문항 구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작성하였다. 질문은 내용은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협동조합 일자리 확대 가능성, 협동조합 참여 및 관심 등과 관련한 내용이며 신경희(2007), 김재민 외(2013)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표 IV-1> 설문문항 구성

영역	세부내용	문항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협동조합 알고 있는가, 협동조합 특징, 협동조합 일자리 장점	3
협동조합 형태 일자리 인식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 사업분야, 관심있는 사업분야,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가능성,	5
협동조합 참여 및 관심	협동조합 관련 교육에 대한 의향,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 협동조합 참여시 출자금 지출 의향	3

나. 응답자 특성

분석대상 여성 318명은 기혼여성으로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연령은 주로 40-50대였으며 학력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30대 이하 18.9%, 40대 39.0%, 50대 30.5%, 60대 이상 7.5%, 무응답 4.1%였다. 그리고 중학교 이하 2.5%, 고등학교졸업 27.0%, 전문대졸업 17.9%, 대학졸업 39.3%, 대학원졸업 5.7%였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이 다수였으며 유아기 자녀가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았다.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2.8%, 50-100만원 미만 4.1%, 100-150만원 미만 5.7%, 150-200만원 미만 9.4%, 200-300만원 미만 16.0%, 300-400만원 미만 22.6%, 400만원 이상 21.4%였다. 유아기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43.1%, 없다고 응답한 여성은 37.7%였다.

〈표 IV-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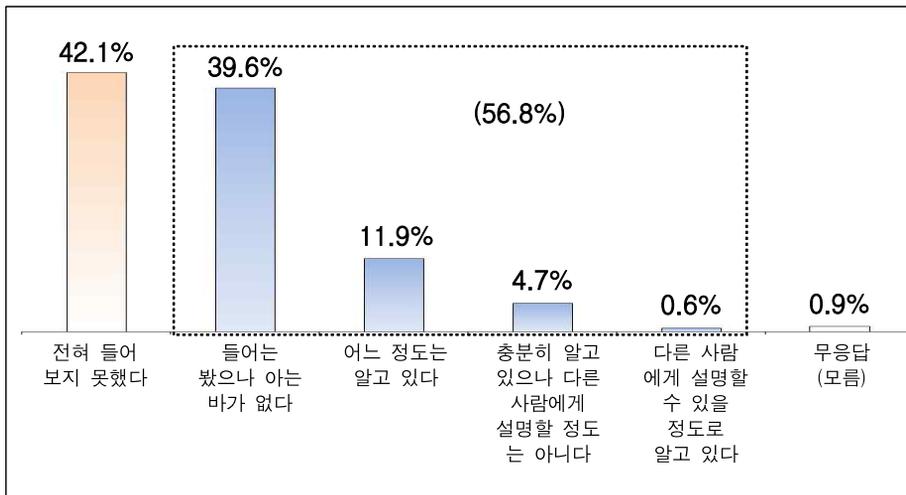
구분			구분			
전체		318(100)	전체		318(100)	
연령대	30대 이하	60(18.9)	가구 소득	50만원 미만	9(2.8)	
	40대	124(39.0)		50-100만원 미만	13(4.1)	
	50대	97(30.5)		100-150만원 미만	18(5.7)	
	60대 이상	24(7.5)		150-200만원 미만	30(9.4)	
	무응답	13(4.1)		200-300만원 미만	51(16.0)	
학력	중학교 이하	8(2.5)		300-400만원 미만	72(22.6)	
	고등학교 졸업	86(27.0)		400만원 이상	68(21.4)	
	전문대 졸업	57(17.9)		무응답	57(17.9)	
	대학 졸업	125(39.3)		유아	유	137(43.1)
	대학원 졸업	18(5.7)		자녀	무	120(37.7)
	기타	5(1.6)	유무	무응답	61(19.2)	
	무응답	19(6.0)	이전	있음	204(64.2)	
		근로	없음	102(32.1)		
		경험	무응답	12(3.8)		

2. 조사결과

가.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 협동조합 인지도

여성들에게 협동조합은 익숙하지 않은 일자리이다. 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였으며 알고 있는 경우에도 들어본 정도에 불과하여 협동조합 이해 교육을 확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0.6%였고, 그 외 ‘충분히 알고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정도는 아니다’ 4.7%,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11.9%, ‘들어는 봤으나 아는 바가 없다’ 39.6% 등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경우를 합해 협동조합 총 인지도는 56.8%였다. 한편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42.1%, 무응답자는 0.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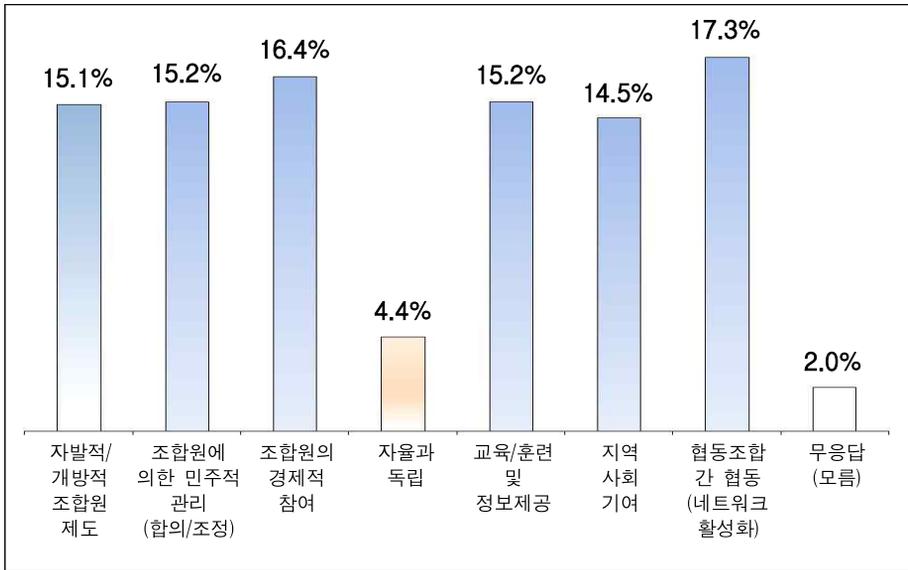


[그림 IV-1] 협동조합 인지도

○ 협동조합 특징에 대한 인식(다중응답)

협동조합 특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응답하였다. 그러나 ‘협동조합 간 협동(네트워크 활성화)’,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 3가지 항목이 많이 꼽혔으나 ‘자율과 독립’에 대해서는 매우 낮게 응답되어 자율과 독립이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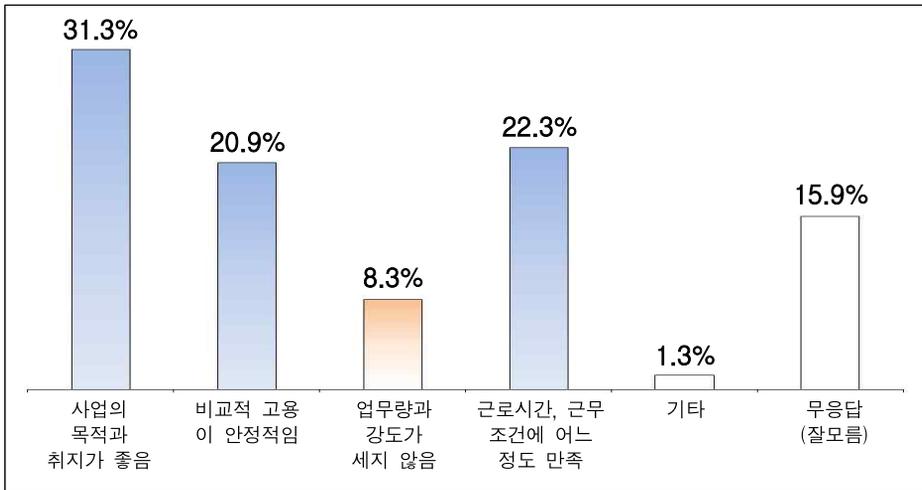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의 특징에 대해, ‘협동조합 간 협동(네트워크 활성화)’ 17.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16.4%,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합의/조정)’와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각 15.2%, ‘자발적/개방적 조합원 제도’ 15.1%, ‘지역사회 기여’ 14.5%로 나타났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자율과 독립’이라는 의견은 4.4%로 협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인식이 낮았으며 협동조합의 특징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2.0% 정도 되었다.



[그림 IV-2] 협동조합 특징에 대한 인식

○ 협동조합 일자리 장점에 대한 인식(1.2순위 다중응답)

협동조합 일자리에 대해서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로 이러한 응답은 여성일자리로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좋음’이 3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시간, 근무조건에 어느 정도 만족(일가정양립 가능 등)’ 22.3%,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임’ 20.9%, ‘업무량과 강도가 세지 않음’은 8.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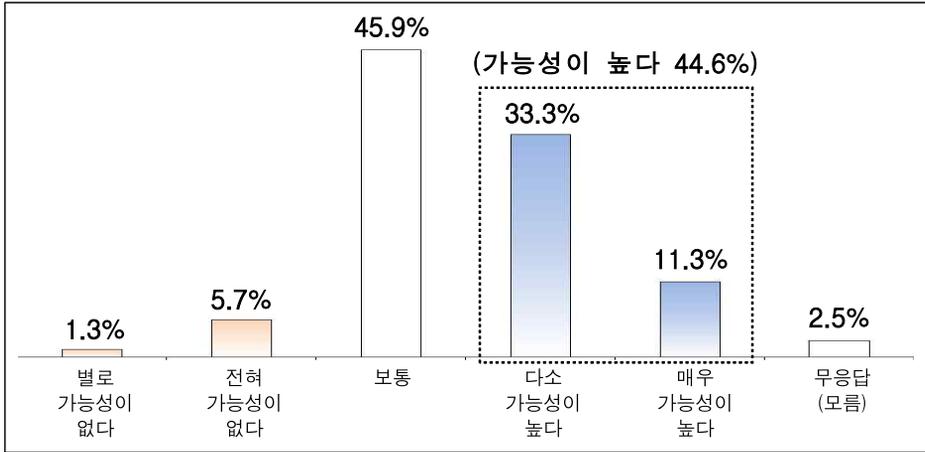
[그림 IV-3] 협동조합 일자리 장점

나. 협동조합 형태 일자리에 대한 인식

○ 협동조합 형태가 새로운 일자리로서 가능성 인식

협동조합이 새로운 일자리로서 가능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가능성이 높다(다소+매우 가능성이 높다)’는 44.6%, ‘없다(별로+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7.0%였다. 구체적으로 ‘보통이다’ 45.9%, ‘다소가능성이 높다’ 33.3%, ‘매우가능성이 높

다’ 11.3%, ‘전혀 가능성이 없다’ 5.7%, ‘별로가능성이 없다’ 1.3%로 나타났다.



[그림 VI-4] 협동조합 여성일자리 대안 가능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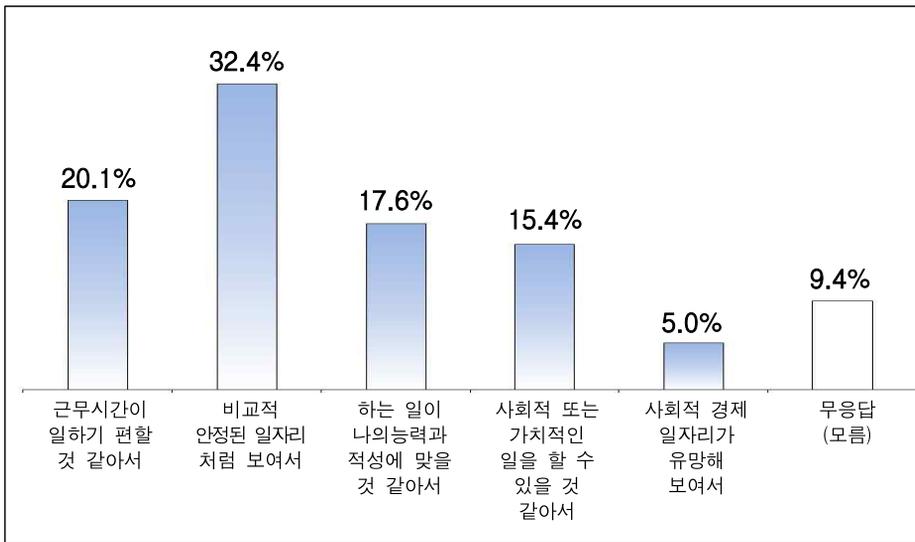
그리고 근로경험이 없는 경우 보다 있는 경우에 협동조합이 새로운 일자리로서 가능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근로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가능성이 높다(다소+매우 가능성이 높다)’는 48.5%, 근로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가능성이 높다(다소+매우 가능성이 높다)’는 39.2%로 나타났다.

<표 IV-3> 근로경험 유무별 협동조합 여성일자리 대안 가능성에 대한 인식

구분		전혀 가능성이 없다	별로 가능성이 없다	보통이다	다소 가능성이 높다	매우 가능성이 높다	무응답 (모름)	
합계		318	4 (1.3)	18 (5.7)	146 (45.9)	106 (33.3)	36 (11.3)	8 (2.5)
근로경험	유	204	1 (0.5)	14 (6.9)	86 (42.2)	70 (34.3)	29 (14.2)	4 (2.0)
	무	102	2 (2.0)	4 (3.9)	53 (52.0)	34 (33.3)	6 (5.9)	3 (2.9)
	무응답	12	1 (8.3)	0 (0.0)	7 (58.3)	2 (16.7)	1 (8.3)	1 (8.3)

○ 협동조합 형태 일자리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 이유

협동조합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고용 안정성과 편리한 근로시간으로 협동조합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하나의 요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처럼 보여서’ 라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근무시간이 일하기 편할 것 같아서’ (20.1%), ‘하는 일이 나의 능력과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17.6%), ‘사회적 또는 가치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5.4%), ‘사회적 경제 일자리가 유망해 보여서’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 협동조합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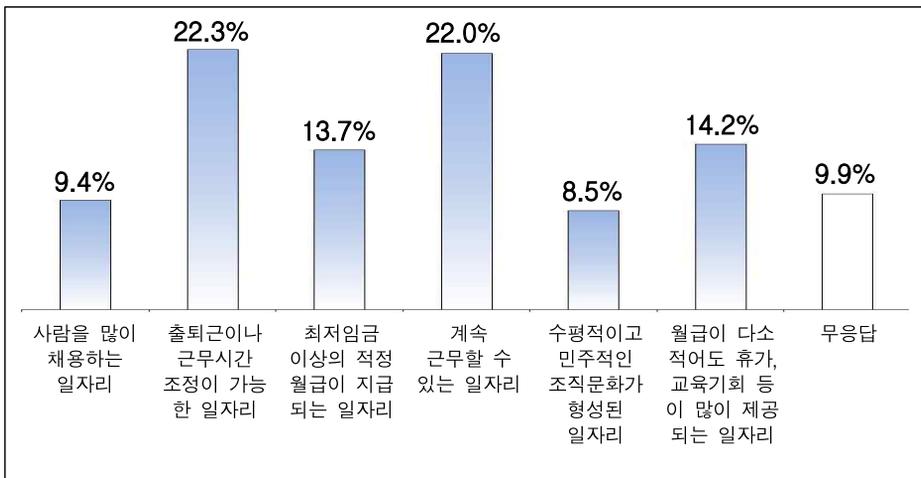
협동조합이 안정된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다는 의견은 근로경험이 있는 여성보다는 근로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임’에 근로경험이 있는 여성의 응답은 28.9%, 근로경험이 없는 여성은 41.2%로 1.5배정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V-4> 근로경험 유무별 협동조합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 이유

구분		근무시간이 편리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	능력과 적성에 맞을 것 같음	사회적/가치적인 일	사회적 경계 일자리가 유망	무응답 (모름)
합계		318	64 (20.1)	103 (32.4)	56 (17.6)	49 (15.4)	16 (5.0)
근로경험	유	204	41 (20.1)	59 (28.9)	40 (19.6)	33 (16.2)	13 (6.4)
	무	102	18 (17.6)	42 (41.2)	16 (15.7)	14 (13.7)	2 (2.0)
	무응답	12	5 (41.7)	2 (16.7)	0 (0.0)	2 (16.7)	1 (8.3)

○ 협동조합을 통해 확대를 희망하는 일자리(1.2순위 다중응답)

여성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희망하는 일자리도 고용안정과 근로시간이 좋은 일자리로 고용안정성은 여성일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해된다. 응답결과 ‘출퇴근이나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일자리’ 22.3%,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22.0%, ‘월급이 다소 적어도 휴가, 교육 기회 등이 많이 제공되는 일자리’ 14.2%,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 월급이 지급되는 일자리’ 13.7%, ‘사람을 많이 채용하는 일자리’ 9.4%,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된 일자리’ 8.5%로 응답되었다.



[그림 IV-6] 협동조합 통해 확대를 희망하는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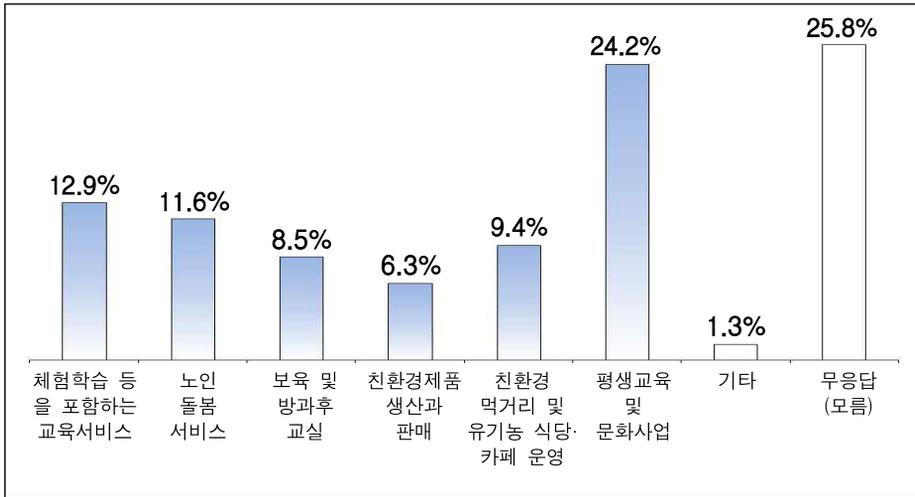
협동조합이 고용안정성과 근로시간이 좋은 일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는 여성은 근로경험이 있는 경우보다는 근로경험이 없는 경우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이나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 일자리’에 근로경험이 있는 여성의 응답은 22.1%, 근로경험이 없는 여성은 24.0%였다. 그리고 ‘계속근무 할 수 있는 일자리’에 근로경험이 있는 여성의 응답은 20.6%, 근로경험이 없는 여성은 25.0%로 나타났다.

<표 IV-5> 근로경험 유무별 협동조합 통해 확대를 희망하는 일자리

구분		표본 수	응답 수	사람을 많이 채용	근무 시간 조정 가능	적정 월급이 지급	계속 근무	수평, 민주적 조직문화가	휴가, 교육기회 등이 많이 제공	무응답
합계		318	636	60 (9.4)	142 (22.3)	87 (13.7)	140 (22.0)	54 (8.5)	90 (14.2)	63 (9.9)
근로 경험	유	204	408	42 (10.3)	90 (22.1)	53 (13.0)	84 (20.6)	41 (10.0)	63 (15.4)	35 (8.6)
	무	102	204	17 (8.3)	49 (24.0)	30 (14.7)	51 (25.0)	11 (5.4)	24 (11.8)	22 (10.8)
	무응답	12	24	1 (4.2)	3 (12.5)	4 (16.7)	5 (20.8)	2 (8.3)	3 (12.5)	6 (25.0)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분야와 관심 있는 사업분야

협동조합 사업분야와 관련하여 대구지역에서 어떤 사업분야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다수 여성이 사업분야에 대해서 잘모른다고 응답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이 사회의 흐름이나 문제 등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 사업분야는 주로 교육분야이다. ‘평생교육 및 문화사업’ 2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체험학습 등을 포함하는 교육서비스’ 12.9%, ‘노인돌봄서비스’ 11.6%, ‘친환경 먹거리 및 유기농 식당·카페 운영’ 9.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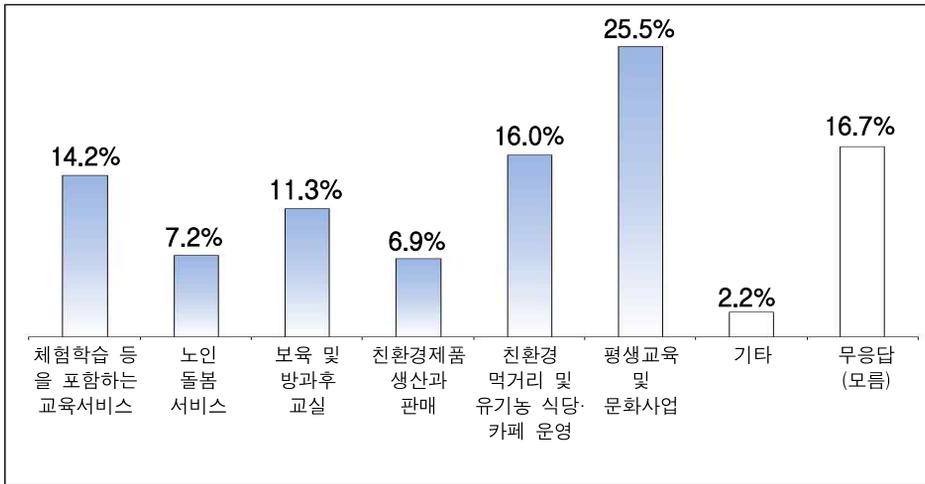
[그림 VI-7]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사업 분야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 사업분야는 ‘평생교육 및 문화사업’ 라는 응답에 대해 근로경험 있는 여성이나 없는 여성이나 응답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근로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평생교육 및 문화사업’ 24.5%, ‘노인돌봄서비스’ 14.7%순으로, 근로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 ‘평생교육 및 문화사업’ 23.5%, ‘체험학습 등을 포함하는 교육서비스’ 17.6% 순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근로경험 유무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 사업분야

구분		체험학습 등을 포함하는 교육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보육 및 방과후 교실	친환경 제품 생산과 판매	친환경 먹거리 유기농 식당·카페운영	평생 교육 및 문화 사업	기타	무응답 (모름)	
합계		318	41 (12.9)	37 (11.6)	27 (8.5)	20 (6.3)	30 (9.4)	77 (24.2)	4 (1.3)	82 (25.8)
근로 경험	유	204	22 (10.8)	30 (14.7)	12 (5.9)	11 (5.4)	21 (10.3)	50 (24.5)	3 (1.5)	55 (27.0)
	무	102	18 (17.6)	6 (5.9)	15 (14.7)	8 (7.8)	7 (6.9)	24 (23.5)	1 (1.0)	23 (22.5)
	무응답	12	1 (8.3)	1 (8.3)	0 (0.0)	1 (8.3)	2 (16.7)	3 (25.0)	0 (0.0)	4 (33.3)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일자리 분야는 교육분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 분야와 유사한 형태로 응답되어 지역에서 ‘교육 및 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한 사업분야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업분야별로 살펴보면, ‘평생교육 및 문화사업’ 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환경 먹거리 및 유기농식당·카페 운영’ 16.0%, ‘체험학습 등을 포함하는 교육서비스’ 14.2%, ‘보육 및 방과 후 교실’ 11.3%, ‘노인돌봄 서비스’ 7.2%와 ‘친환경제품 생산과 판매’ 6.9%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필요한 사업분야와 달리 친환경먹거리 및 유기농 식당·카페운영에 대해서 응답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8]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일자리 사업분야

그리고 협동조합을 통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일자리 사업분야는 ‘평생교육 및 문화사업’ 라는 응답에 대해 근로경험 있는 여성의 응답 비율이 근로경험이 없는 여성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생교육 및 문화사업’에 근로경험이 있는 여성의 응답은 28.9%, 근로경험이 없는 여성은 19.6%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경험이 없는 여성의 경우 ‘친화경 먹거리 및 유기농 식당카페운영’ 19.6%, ‘체험학습 등을 포함하는 교육서비스’ 18.6%로 높게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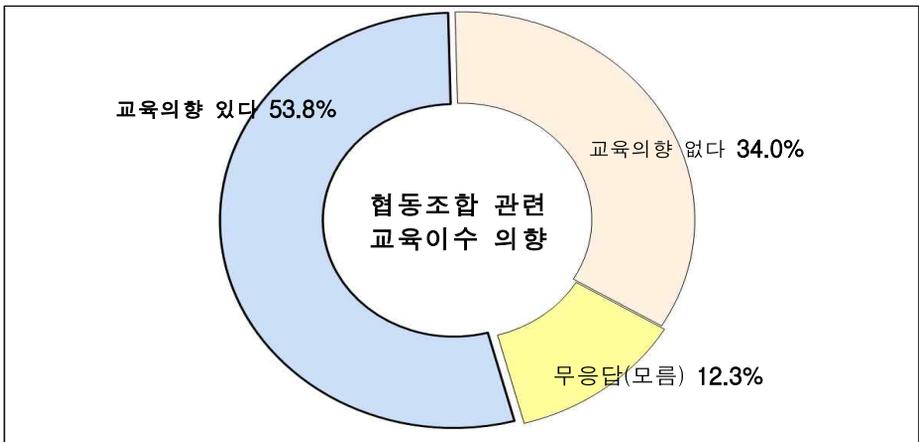
<표 IV-7> 근로경험 유무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일자리 사업분야

구분		합계	체험학습 등을 포함하는 교육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보육 및 방과후 교실	친환경 제품 생산과 판매	친환경 먹거리 유기농 식당·카페운영	평생 교육 및 문화 사업	기타	무응답 (모름)
합계		318	45(14.2)	23 (7.2)	36 (11.3)	22 (6.9)	51 (16.0)	81 (25.5)	7 (2.2)	53 (16.7)
근로 경험	유	204	25(12.3)	18 (8.8)	21 (10.3)	14 (6.9)	28 (13.7)	59 (28.9)	3 (1.5)	36 (17.6)
	무	102	19(18.6)	5 (4.9)	13 (12.7)	8 (7.8)	20 (19.6)	20 (19.6)	3 (2.9)	14(13.7)
	무응답	12	1(8.3)	0 (0.0)	2 (16.7)	0 (0.0)	3 (25.0)	2 (16.7)	1 (8.3)	3 (25.0)

다. 협동조합 참여 및 관심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교육 희망여부

기회가 주어진다면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교육 의향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여성들이 협동조합 형태 일자리에 관심이 높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다’ 는 의견이 53.8%, ‘교육을 받을 의사가 없다’ 34.0%였다.



[그림 IV-9]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교육 희망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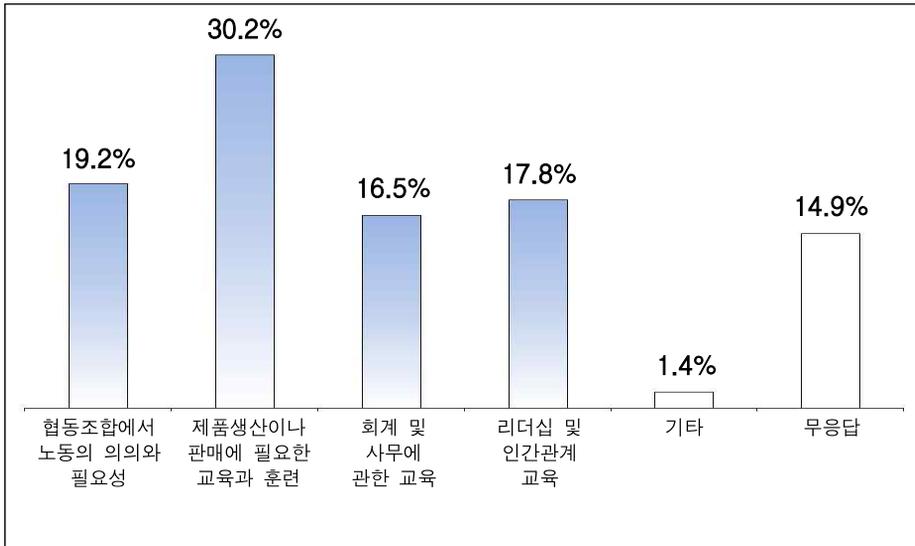
협동조합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교육이유는 주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는 협동조합에 관심이 없거나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표 IV-8> 협동조합 교육 유무 이유

교육을 받고 싶다(53.8%)	교육 받을 의사가 없다(34.0%)
↓(이유)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에 대해 정확히, 자세히 더 알고 싶어서(44) • 새로운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18) • 설립, 운영을 하고 싶어서 혹은 참여 의사가 있어서(18) • 지역사회 기여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 있을 것 같아(14) • 노후 수익 및 일자리를 위해서(6) • 협동조합이 긍정적으로 생각되어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 가사 등으로 시간이 부족해서(13) • 협동조합을 잘 몰라서(10) • 관심 없음(12) • 필요 없음(4) • 지금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4) • 협동조합 일자리 운영, 참여에 자신 없음(7)

○ 협동조합 일자리 참여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1,2순위 다중응답)

여성들은 협동조합 일자리가 ‘제품생산이나 판매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훈련’ 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협동조합 일자리에 대해 수익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품생산이나 판매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훈련’ 30.2%, ‘협동조합에서 노동의 의의와 필요성’ 19.2%, ‘리더십 및 인간관계 교육’ 17.8%, ‘회계 및 사무에 관한 교육’ 16.5%로 나타났다.



[그림 IV-10] 협동조합 참여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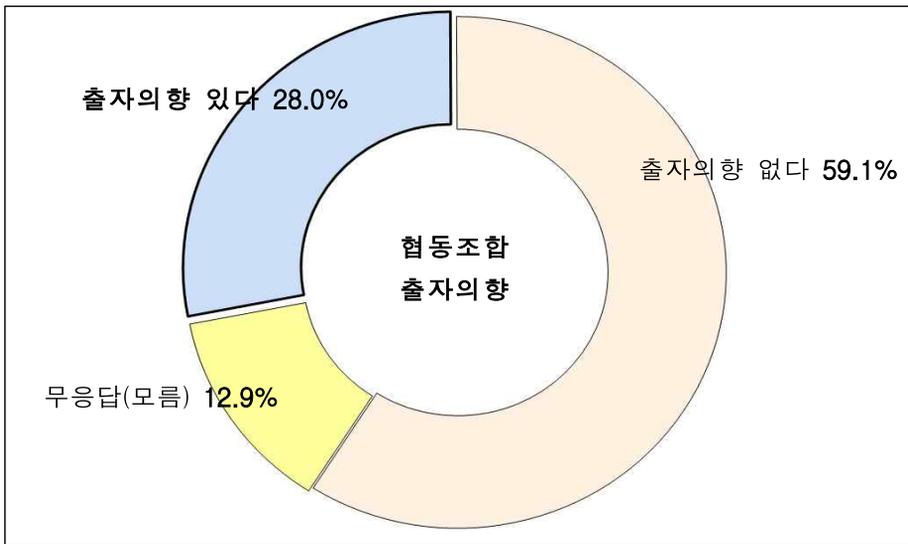
여성 다수가 협동조합 참여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생산이나 판매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근로경험 있는 여성의 응답 비율이 근로경험이 없는 여성 응답비율보다 높았다. ‘제품생산이나 판매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훈련’에 근로경험이 있는 여성의 응답은 31.4%, 근로경험이 없는 여성은 29.9%로 나타났다.

<표 IV-9> 근로경험 유무별 협동조합 참여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구분			협동조합에서 노동의 의의와 필요성	제품생산이나 판매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훈련	회계 및 사무에 관한 교육	리더십 및 인간관계 교육	기타	무응답	
	표본 수	응답 수							
합계	318	636	122 (19.2)	192 (30.2)	105 (16.5)	113 (17.8)	9 (1.4)	95 (14.9)	
근로 경험	유	204	408	79 (19.4)	128 (31.4)	73 (17.9)	72 (17.6)	6 (1.5)	50 (12.3)
	무	102	204	38 (18.6)	61 (29.9)	30 (14.7)	38 (18.6)	3 (1.5)	34 (16.7)
	무응답	12	24	5 (20.8)	3 (12.5)	2 (8.3)	3 (12.5)	0 (0.0)	11 (45.8)

○ 협동조합 참여시 출자 의향

여성은 협동조합 참여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자본금 등) 출자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출자의향 이유에도 나타나듯이 여성은 가족 내에서 부수입원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출자할 의향에 대해서는 ‘출자 의향이 있다’가 28.0%, ‘의향이 없다’ 59.1%로 나타났다.



[그림 IV-11] 협동조합 참여시 출자의향

출자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협동조합 일자리의 목적과 취지에 이유를 두었다. 주로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일자리거나 참여자체에 의미를 둔다고 하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출자의향이 없는 이유는 가장 많은 부분이 자금이 부족하거나 현재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었으며 그 외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출자의향이 없다고 하였다.

〈표 IV-10〉 출자의향 유무 이유

출자 의향이 있다 28.0%	출자 의향이 없다 59.1%
↓(이유)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공유 등 목적과 취지에 동의, 관심분야 참여(17) • 소득, 수익 보장 (7) • 안정된 일자리 보장(7) • 출자하면 책임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음(11) • 협동조합, 공동체 참여하고 싶어서(8) • 사업할 경우 필요할 것 같아(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부족, 경제적 여유 없음 (51) • 협동조합에 대해 아는 것이 없거나 잘몰라서(32) • 확실성 부족, 부정적 전망(7) • 생각해본적, 관심 없음(9) • 신뢰성, 투명성 걱정됨(3)

3. 소결

협동조합법 제정이후 협동조합이 여성일자리 대안으로서 제기되었지만 지역 여성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일자리이다. 하지만 향후 여성이 참여가 높은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협동조합 일자리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도는 높았다. 그리고 여성에게 일자리로서 협동조합은 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협동조합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좋아서 여성 일자리로서 장점을 가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여성일자리로서 고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유지 성장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고용의 안정성 및 고용유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협동조합의 사업목적이나 취지가 좋기 때문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일자리로서 고용 안정성이 없다면 이들이 협동조합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시간 선택 가능한 일자리로 협동조합을 고려한다는 의견도

높았는데 이러한 요구는 여성친화성과도 관련되어지는 부분으로 향후 협동조합 일자리가 추구하고 나가야할 부분으로 이해된다.

여성들은 협동조합 일자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여성취업기관 등을 통한 협동조합 교육 확대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협동조합 교육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자세히 알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 희망하였고 협동조합 교육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협동조합의 관심도가 낮아서라기보다는 가족 돌봄, 육아 등의 이유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리고 여성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필요충족보다 수익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협동조합 운영에서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취업과정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협동조합 교육에서 ‘제품생산이나 판매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협동조합의 결사체적인 성격보다는 사업체적인 성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 중심의 협동조합이 설립운영 될 경우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 사업분야는 교육 문화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발굴을 고려해야한다. 협동조합을 할 경우 어떤 분야에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 분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 모두 ‘평생교육 및 문화사업’에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돌봄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교육보다 관심이 낮았으나 저출생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라 수요 증가 측면에서 제고를 해보야 할 분야이다. 둘째, 협동조합 특징(자발 및 개방적 조합원제도, 민주적 관리 및 협의조정,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 협동, 자율과 독립) 중 ‘자율과 독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자율과 독립’은 협동조합 자립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중요한 가치로 인식시키고 협동조합의 사업체적 성격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셋째, 여성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성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자본금 확보 방안과 협동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원의 출자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설립이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

해서 수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협동조합 자체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출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이는 대부분 여성들이 가정에서 부수입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 | | |
|----------------|----|
| 1. 연구결과 종합 | 91 |
| 2. 지원정책 및 추진과제 | 93 |

1. 연구결과 종합

협동조합은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전에 열린 조직 형태로 여성 역량강화의 장이된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동일한 필요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일할 수 있고 평등한 참여를 통해 남녀가 함께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장점은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협동조합은 여성친화성이 높은 일자리로 특히 결사체 성격이 강한 협동조합이 사업체 성격이 강한 협동조합보다 가족돌봄 등이 수월하여 여성친화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된다.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여성의 역량은 향상되지만 가족돌봄 등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어 협동조합의 여성친화성을 높이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가정양립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한편, 협동조합이 여성일자리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여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높여야한다. 그리고 비공식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협동조합 형태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여성자조모임이 발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설립 전 단계로 여성협동조합 인큐베이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과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협동조합 설립 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성 향상과 내부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 협동조합 자립을 위한 수익모델 발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지원은 여성취업지원기관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기관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여성취업지원기관은 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게 접근성이 높고 여성 취·창업에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과정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협동조합 여성일자리 창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향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명확한 설립목적, 사업 차별성을 통한 시장 경쟁력 등 갖출 수 있도록 여성취업지원기관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지원 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 설립 전에 참여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은 설립이후 운영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경험들은 협동조합의 수익사업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협동조합 설립지원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 전에 여성들이 충분히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업 발굴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협동조합 사업은 기업이나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발굴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는 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하여 돌봄 및 복지 서비스와 여성들의 관심도가 높은 교육문화, 교육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여성협동조합 사업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취업지원기관의 일자리협력망이나 여성친화기업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한다면 기존 사업체와 차별성 있게 협동조합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협동조합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결사체 성격으로 설립된 경우 사업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장경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 주식회사가, 사회적 기여 활동을 위해 사단법인이 존재한다면 협동조합은 그 두 가지가 포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에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협동조합은 설립 욕구에 따라 결사체 성격이 강하냐 아니면 사업체 성격이 강하냐로 구분되어진다. 결사체 성격의 협동조합에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접근이 쉽고 일정수준의 학력과 경제적 소득을 가지는 여성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성격 형태에서는 조직이 어느 정도 느슨하게 운영되고 민주적인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등으로 여성친화적 일자리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나 수익창출 어려움으로 협동조합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조합원 대상으로 경제, 시장, 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통해서 시장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협동조합 설립의 욕구에 따른 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민간공모사업, 정부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협동조합 사업 브랜드화 등을 위한 컨설팅이 지원되어야 한다. 여성협동조합 운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업 운영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지원기관의 도움으로 설립 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병행하여 운영하며 이러한 사업지원이 종료되면 협동조합 활동도 동시에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자체 사업발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설립 후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통해서 ‘자율과 독립성’이라는 협동조합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조언과 사업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협동조합 설립은 물론 설립이후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조합원의 역량 개발, 조합원간 갈등해소 등 문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취업지원기관과 사회적경제지원기관 등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지원기관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설립이후 운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은 미흡하다고 이해된다. 그래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협동조합 발굴 지원을 위해서는 여성취업지원기관과 협력을 한다면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참여 확대의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지원정책 및 추진과제

- 지역 내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여성활동 모임과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사업운영

- 지역 내 민간 및 공공기관의 풀뿌리조직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한 여성동아리, 여성소모임 등 발굴
- 지역 내 여성자조모임 활성화 및 사업 발굴을 위한 창업경진대회 개최

여성 경제활동참여는 남성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사회참여는 남성보다 관심도가 높으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비공식적인 동아리모임, 봉사활동모임, 학부모모임, 마을공동체 활동 등을 통하여서 보상 없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성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조직(대구여성가족재단 여성풀뿌리모임지원사업, 대구시 공익지원센터 소모임지원사업 등)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협동조합 형태로 활동을 원하는 조직을 발굴하고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 및 설립운영 컨설팅을 한다면 여성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구시 주관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해서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모임을 찾아서 협동조합 설립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모임들은 이미 결사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굴된 여성모임이 좀 더 체계를 가지도록 사업체 성격(기업성)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이 이루어진다면 여성들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만들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사업아이템을 고려한 맞춤형식의 교육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 여성취업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여성협동조합 지원사업 운영 및 여성 리더 양성

- 돌봄 서비스, 교육, 예술문화서비스 등 협동조합 형태 창업지원을 위한 여성창업아카데미 운영(여성리더 양성)
- 여성협동조합 및 준비단 지원 프로그램 운영(협동조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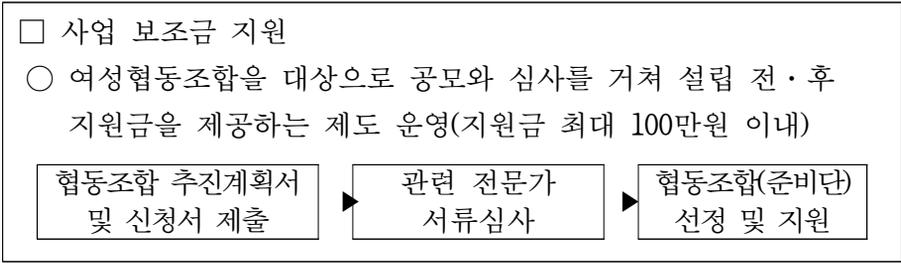
여성친화적인 여성협동조합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지원기관을 통해 설립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협동조합이 좀 더 여성친화적이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접근이 쉽고 여성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판단된다.

여성창업아카데미는 대구 지역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돌봄 서비스, 교육, 예술문화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창업 준비부터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 설립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운영 단계에서 협동조합 설립 경험자 등을 통해 현실적인 멘토링과 협동조합 성장을 위한 조직운영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창업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협동조합 여성리더도 양성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여성협동조합 인큐베이팅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여성협동조합 및 준비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은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여성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협동조합 운영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여성협동조합 및 준비단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안은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V-1> 여성협동조합 및 준비단 지원 프로그램(안)

<p>□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취업지원기관 교육생 중 협동조합 설립운영자 또는 준비 중인 자 ○ 협동조합 창업 형태에 관심 있는 대구시 여성 ○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준비단)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일 것 - 협동조합(준비단) 대표가 여성이어야 함 - 사업분야가 돌봄서비스, 교육, 예술문화서비스 일 것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특화 협동조합 및 준비단을 발굴하여 지원 ○ 여성협동조합 관련 안내 책자 제작 및 배포 ○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조직 탐방 진행 ○ 여성협동조합 워크숍 진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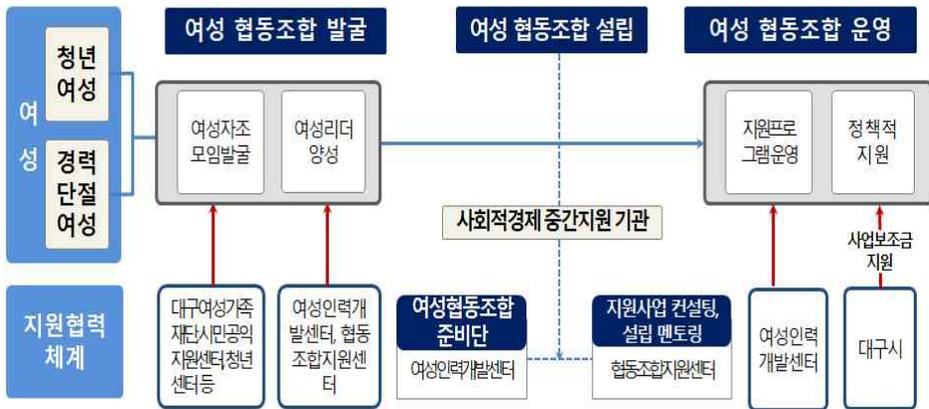
○ 여성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협동조합지원 협력체계 구축

- 협동조합 설립 준비부터 설립 후 관리까지 각 단계 협력을 통한 여성협동조합 육성
- 경력, 전문성을 가지는 여성 발굴-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 설립 지원-협동조합 운영 지원(모니터링) 단계별 협력

여성협동조합이 여성친화적인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설립 전 여성협동조합 발굴, 여성협동조합 설립, 여성협동조합 운영 각 단계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한 개의 여성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이 잘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설립 준비부터 설립 후 관리까지 각 단계 여성취업지원기관, 사회적경제지원기관, 공공기관, 대구시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여성협동조합 육성이 필요하다. 여성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는 ① 조합원이 출자를 할 수 있는가? ② 조합원들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③ 자체교육사업(직원들의 교육)을 통한 끊임없는 역량강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는가? ④ 기존 기업과의 사업(일반기업과의 고객 대상층,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 등)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따른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여성협동조합 발굴 단계에서는 여성 자조모임 지원, 여성리더 양성, 사업 아이디어 및 업종 발굴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여성취업지원기관과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외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협동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기

관과 여성취업지원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협동조합이 설립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설립 후 운영 단계에서는 여성취업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인사, 노무, 경영 조직관리 등), 조직문화개선 교육, 조합원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대구시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협동조합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림 V-1] 여성협동조합 육성 지원 협력체계 구축(안)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고태호 (2018). 「좋은 일자리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제주지역 청년일자리
를 중심으로-」. 제주시: 제주연구원.
- 길현종·안주엽(2014). 「협동조합의 고용실태와 과제」. 세종시:한국노동연
구원.
- 김명화 (2015). 「경북형 여성협동조합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 경산: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복태·문미경·김대진·황현숙 (2014).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복태·이계만·박범준 (2018). 협동조합 네트워크 다양성이 조직의 경제
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수도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거
버넌스학회보」, 25(1): 183-209.
- 김복태·정수현(2012).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따른 여성일자리 창출 방향
과 과제,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김재민·김정희·조옥·서옥산 (2013). 「서울 여성협동조합 생태계 연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학실 (2011). 사회적 기업의 여성 친화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
표논문집.
- 남승연 (2015). 「여성친화 사회적 경제 모델의 가능성 탐색」. 수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 대구광역시·커뮤니티와경제 (2018).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이
야기하다」 대구 협동조합 대토론회 자료집.
- 방하남·이영면·김기현·김한준·이상호 (2017). 「고용의 질-거시기업 개
인수준에서의 지표 개발 및 평가」. 세종시: 한국노동연구원.
- 석태문 (2013). 「대구지역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방안」. 대구: 대구경북연
구원.
- 석태문 (2014). 「대구 협동조합 육성방향」.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 신경희 (2007). 「지역사회기반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방안」.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안수영 (2014). 「협동조합 통한 공동체형 여성일자리 확대방안」. 공주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여성가족부 (2013).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부 (2008). 여성친화적기업모델 구축. 서울: 여성부
- 오은진·김복태·김난주 (2012). 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현경 (2019). 「한국의 협동조합 지역별 현황과 성장과정 탐색」.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선·권소일·남상호·김미숙·오영호·윤강재·김현식·이상림(2012). 「협동조합기본법관련 현황조사 연구」. 기획재정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현주·최청탁·이은지 (2016). 「사회적경제 모델을 통한 여성일자리 확대방안」.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정형욱 (2013).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고용활성화 방안」.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크리스 킬리·찰스 킬리 (2006). 「자본주의의 노동세계」. 이병훈·조효래·윤정향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 대구광역시 (2019). 시정백서
- 대구광역시(2018.12).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안): 2019-2021.

(2) 해외문헌

- Kalleberg, L. Arne (2011). Good Jobs, Bad Jobs. N.Y: Russell Sage Foundation.
- Cattaneo, R. J. et al. (1994). Women in management as a strategic HR initiative. Women in Management Review, 9(2): 23-28.
- Chiu, W. C., & C. W.(2001). The differential effects of work- and

family-oriented women-friendly HRM on OC and OCB: the case for single female employees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2(8): 1347-1364.

Wilkkof, M. V. & Schneer, J. (1995). Is your company and culture women-friendly? *Journal for Quality & Participation*, 18(3): 66-69.

(3) 인터넷자료

고용노동부 (2017. 12. 26).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 보도 자료. 2018년 3월 13일 인용, <http://www.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2017. 10. 18).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17년 10월 18일 인용, <http://www.korea.kr>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홍보포털 협동조합현황, 2019. 5. 30 검색, <http://www.coop.go.kr/COOP>,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공식 블로그. 「'엄마에서 다시 예술가로' 엄마들의 성장 이야기: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어!작성자 서울시 협동조합」 2019. 11. 27 검색, <https://seoulcoopcenter.blog.me/221245833548>

협동조합 COOP 공식블로그. 「협동조합 여기! #20.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2019. 11. 26 검색, https://blog.naver.com/coop_2012

산림치유 매거진 에코힐링 「숲에서 행복의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 2019. 11. 26 검색, <https://eco-healing.tistory.com/164>

협동조합 COOP 홈페이지 <http://www.coop.go.kr/COOP>

부 록

〈부록 1〉 사례조사 면접조사지	105
〈부록 2〉 설문조사지	107

사례조사 면접조사지

1. 참여자 소개

성명		출생연도	()년도
결혼상태	기혼□ 비혼□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자녀 수	()명	어린자녀 연령	()세
협동 조합명		협동조합 유형	
협동조합 구성원 수	남성()명 여성()명	협동조합에서 주요 역할	

2. (계기 및 목적) 처음에 어떠한 목적과 계기를 가지고 협동조합에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 협동조합 참여 계기
- 협동조합 업종 혹은 주요사업과 관련된 문제의식과 요구
- 협동조합 참여 이전 활동 경험과 최초 협동조합 참여 계기 및 목적

3. (구성과 역할) 협동조합 참여자들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 협동조합 구성이나 운영 과정에서 맡은 역할
- 협동조합 구성원 역할에서의 성별 차이
- 역할 배분 방식과 과정에서의 성별 차이

4. (주요활동 및 운영방법) 협동조합의 주된 활동은 무엇입니까?

- 협동조합 활동 기획 및 운영방식
- 협동조합 활동 기획과 운영을 주도하는 구성원(협동조합에서의 역할, 연령, 성별 등)
- 이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활동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까?

5. (활동 후의 변화) 협동조합 참여로 얻은 장점은 무엇입니까?
 - 참여 전과 비교했을 때 스스로 변화했다고 느끼는 부분(개인 역량, 가족·지역사회 관계 등 포함)
 - 타인의 시선 변화

6. (에로사항)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협동조합 참여와 일·가정양립 정도(가족-부모, 자녀, 남편 등의 반응, 지지 등)
 - 협동조합 참여 및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 에로사항의 해결방법
 - 협동조합 수익적 측면에 대한 생각

7. (향후계획) 앞으로도 계속 협동조합에 참여할 계획이십니까?
 - 생각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미래상
 - 협동조합 내에서 개인의 역할과 발전 강도
 - 향후 다른 사회적경제조직 활동(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구성

8. (정책) 귀하는 여성의 협동조합 참여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적합한 지원부분과 방식

9. (기타) 이밖에 협동조합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 있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일자리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대구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여성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파악하여 일자리 확대 가능성 검토하고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협조하여 주시면 향후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므로 설문 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이 조사의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 10월



- 연구기관 :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053-219-9982)
- 조사기관 : (주)소셜데이터리서치 (070-7931-0115)

※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평소 귀하가 알고 있는 시거나, 느끼신 곳에 V표해주세요

[II] 협동조합 형태 일자리에 대한 인식

4. 귀하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 사업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체험학습 등을 포함하는 교육서비스
- ② 노인돌봄서비스
- ③ 보육 및 방과후 교실
- ④ 친환경제품 생산과 판매
- ⑤ 친환경 먹거리 및 유기농식당·카페 운영
- ⑥ 평생교육 및 문화사업
- ⑦ 기타()

5. 본인이 관심 있는 일자리 사업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체험학습 등을 포함하는 교육서비스 ② 노인돌봄서비스
- ③ 보육 및 방과후 교실 ④ 친환경제품 생산과 판매
- ⑤ 친환경 먹거리 및 유기농식당·카페 운영 ⑥ 평생교육 및 문화사업
- ⑦ 기타()

6. 협동조합 형태가 새로운 일자리 대안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가능성이 없다 ② 별로 가능성이 없다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가능성이 높다 ⑤ 매우 가능성이 높다

7.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떤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까?

(1, 2순위 기재)

1순위	()	2순위	()
-----	-----	-----	-----

- ① 사람을 많이 채용하는 일자리
- ② 출퇴근이나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일자리
- ③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 월급이 지급되는 일자리
- ④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 ⑤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된 일자리
- ⑥ 월급이 다소 적어도 휴가, 교육기회 등이 많이 제공되는 일자리

8. 협동조합 형태 일자리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시겠습니까?

- ① 근무시간이 일하기 편할 것 같아서
- ②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처럼 보여서
- ③ 하는 일이 나의 능력과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 ④ 사회적 또는 가치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⑤ 사회적경제 일자리가 유망해 보여서

[Ⅲ] 협동조합 참여 및 관심

9. 협동조합(사업공동체)에 참여한다면 운영에 필요한 비용(자본금 등)을 출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의향이 있다

② 의향이 없다



(의향이 있는 이유)	(의향이 없는 이유)

기본과제 2019-07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여성일자리 확대방안

2019년 12월 20일 인쇄

2019년 12월 23일 발행

발행인 : 정 일 선

발행처 : (재)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41(1층)

TEL. 053)219-9970 FAX. 053)219-9979

인쇄처 : 초록뱀디지털

TEL. 053)852-7842 FAX. 053)852-7843

ISBN : 978-89-97062-45-4 (93300)

<비매품>

이 보고서의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